

# 헬로우 넥센



##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넥센타이어

모두가 놀랐습니다. 넥센타이어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타이어 역사의 새로운 흐름. 쉽게 넘볼 수 없던 세계시장에 기술력과 열정으로 당당히 대한민국 타이어 브랜드의 이름을 새긴 넥센타이어. 그러나 우리의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중국에 이어 우리 땅에 지어질 대규모 생산라인 창녕 공장. 넥센타이어는 다시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 CONTENTS

04 CEO 메시지

06 월(日)

### Driving

08 클로즈업 ①

14 클로즈업 ②

18 핫이슈 ①

22 핫이슈 ②

24 동그라미 Q&A

26 넥센프렌즈 ①

We ♥ 넥센 히어로즈

신제품 시승회 & 개발 후기

라이펜 에센으로 보는 타이어 트렌드

부산국제모터쇼 속의 넥센타이어

안전한 휴가를 위한 자동차 셀프 점검법

타이어테크 대구 시지점

### Knowing

27 테마를 열다

28 테마를 알다

32 테마를 논하다

36 테마를 즐기다

SPECIAL THEME, 캠핑

Let's go camping

캠핑, 떠분한 일상에 찍은 굵은 느낌표

캠핑페인 가족이 말하는 캠핑의 정석

안 놀아 봤으면 말을 마세요

### Feeling

40 어느 멋진 날

44 별별 콘테스트

46 패밀리가 떴다

48 즐거운 인생

50 똑똑, 분임조 습격사건

53 나눔 그리고 어울림

54 참, 고맙습니다

56 편지 쓰기 좋은 날

58 넥센프렌즈 ②

스트레스를 날리는 조금 오싹한 방법

넥센 미중년을 찾아라

사랑으로 그리는 행복 한 접시

산그늘에 폭 빠져든 예비 심마니

한아름분임조의 과일파티

20년 장기근속 기념여행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사이, Partner

볼수록 애교만점 딸내미들의 편지

타이어애펠트 울산 북구점

### Jumping

60 지구를 위한 작은 배려 쇠젓가락

62 재테크의 기술

64 가장 귀한 건강

66 우리아이 마음 읽기

68 맛있는 휴식, 여행

73 넥센프렌즈 ③

74 넥센뉴스

통장 경영, 잘하고 계십니까?

여름 보약, 멀리서 찾지 마세요

성교육, 미루지도 감추지도 마세요

변산반도 1박2일 가족여행

타이어뱅크 서일산점

## 호기심 소년의 즐거운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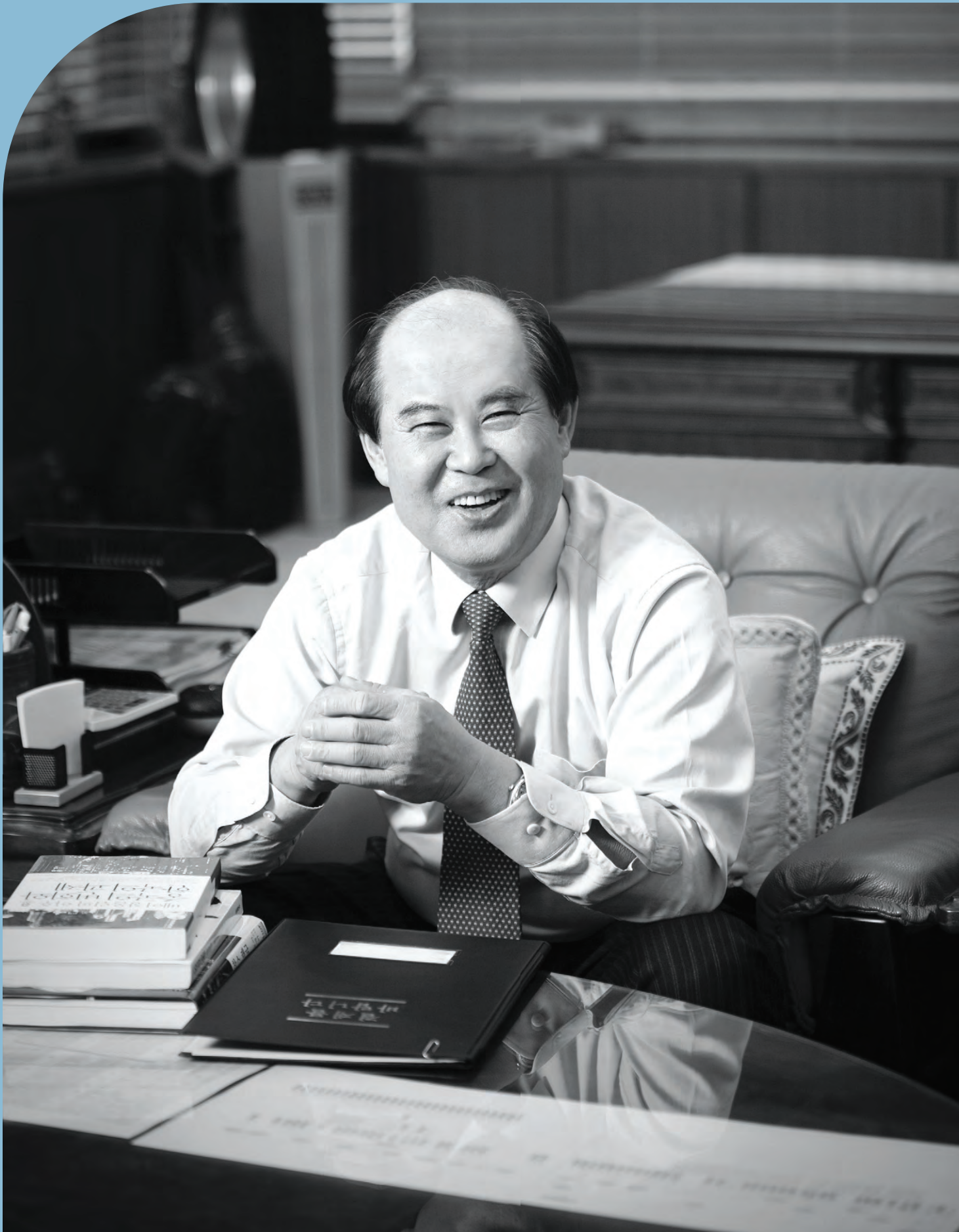
품질검사팀 박창현 사우

이제 막 서른을 넘겼다는 박창현 사우. 뺨만 얼굴에 어린 장난기와 수줍음이 아직 어른보다는 소년의 것에 가깝고 사뿐사뿐 움직이며 경쾌하게 일하는 모습도 무슨 신나는 놀이를 하는 것만 같다. 이 옛된 소년 같은 그가 2010 상반기 제안활동 1위를 달리는 중이다. 총 37개의 제안이 혁신으로 이어져 무려 1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냈다니 역시 무엇이든 걸만 박선 모르는 일인가 보다.

“물론 귀찮죠.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는데 멈추고, 생각하고, 고치고, 바뀌어야 하잖아요.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을 많이 해줘요. 도움도 주고요. 호기심 많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의 제안으로 타이어 1개의 사이클타임이 43초에서 37초로 6초나 줄었다. 각 부분에서 걸리고 밀리던 것들을 하나 하나 고치며 모은 귀한 6초. 그 결과는 다시 박창현 사주를 제안활동 1등으로 밀어 올렸다. 결과 나오는 게 재밌어 점점 욕심이 난다고 하니 앞으로도 그의 ‘제안놀이’는 지켜볼 만한 것이다.

작은 결점이 모두의 노력을 가리는 큰 허점이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품질검사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재능 있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일도 제안도 놀이하듯 즐기는 그가 그곳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 어제를 뛰어넘는 더 큰 결실을 위하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이현봉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 세계적 금융경색과 실물경제 동반 침체가 확산되면서 참으로 어려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경남 창녕에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해, '국내 3강 체제의 확립', '세계 10위권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과시한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 역시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와 함께 안정세로 돌아섰던 유가와 원부재료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으며, 달러화 약세의 지속으로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의 성과에 대해 자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올해 우리가 세우고 목표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생산, 영업, 전략개발, 지원, NCP 등 모든 분야에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상호 신뢰의 노사 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면 지난해와 같이 어려웠던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우리가 이루어 낸 성과를 뛰어넘는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5월 1일  
창립기념식사에서  
대표이사 부회장 이 현 봉



##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

일본에 모터를 만드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1973년 당시 사장을 포함해 단 네 명의 인원으로 시골 창고를 얻어 시작한 조그마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까요. 140개 계열사와 13만 명의 직원, 매출 8조 원이라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그 소박한 회사 '일본전산'의 요즘입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한다'는 단순한 모토만큼이나 우직한 힘으로 오일쇼크와 10년 불황이라는 악재를 뚫고 최고가 된 그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하기 전에 당신은 정말 충분히 노력했느냐고요.

### 〈일본전산 이야기 중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 45쪽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두 배로 노력하면 된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오후 6시에 '해결했다'며 룰루랄라 퇴근했다면, 똑똑하지 못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밤 11시까지 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럼 결과는 같아지는 것 아니냐? ● 77쪽

한 가지 일에 실패하고 문책당해서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만두게 된다. 한 번 정복하지 않은 실패는 또다시 엄습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회사만 아니면, 이 상사만 벗어나면, 뭔가 새로운 환경만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라. 실패와 포기의 패턴은 마치 유전자 코드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에 세팅된다. 그 세팅을 한 번이라도 어그러뜨려서 뒤집어놓아야 동일한 패턴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보적 반발심'이다. ● 170쪽

'남들도 하기 싫어할 때', '그만 하고 싶은 생각이 턱까지 올라올 때', '그래도 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때로는 '승리의 비결' 따위는 너무도 간단하다. '끝까지 하는 습관'이 들었을 뿐이다. 그냥 하는 시늉만 하거나, 머리로만 하겠다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 254쪽



# 한여 여까지 후



# 도풍

## 넥센 히어로즈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팀이 저마다 우승이라는 꿈을 안고 달려온 지 여러 달. 턱까지 차 오를 정도로 숨이 가빴던 2010년 프로야구의 전반기가 마감됐다. 다른 어느 팀보다 화려하게 시즌을 시작하고 치열하게 승리를 향해 달려온 넥센 히어로즈 역시 전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이들의 전반기는 어떠했을까. 그리고 한여름 태양보다 뜨거워질 후반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 출발, 그랜드슬램!

야구의 꽃은 홈런이다. 그리고 홈런의 꽃은 만루홈런, 즉 그랜드슬램이다. 타자와 투수 모두에게 긴장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주 연출되는 상황도 아닐뿐 더러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주자를 한꺼번에 불러들이는 통쾌한 한 방은 다른 어떤 홈런보다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넥센 히어로즈가 시즌 초반부터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끈 것도 올 시즌 첫 그랜드슬램으로 2010년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주인공이 그동안 거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던 포수 강귀태였기에 더욱 큰 화제가 되었다. 물론 이런 폭발력이 단발성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화력의 팀 롯데 자이언츠와의 개막 2연전 동안 넥센 히어로즈는 김민우의 2010 시즌 첫 홈런을 포함해 총 여섯 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14점을 뽐냈다. 넥센 히어로즈의 전력을 약체로 평가했던 전문가들은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고 더 치열한 각축을 바라던 모든 프로야구 팬들은 다크호스의 출현에 열광했다. 물론 그 뜨거운 관심은 비단 약자에게 보이는 호의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불굴의 의지에 대한 찬사였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랬다. 넥센 히어로즈는 그 어느 팀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팀의 원투 펀치라 할 수 있는 장원삼과 이현승이 각각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으며 중심 타자였던 이택근은 LG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게다가 전천후 투수로 마운드를 지키던 마일영은 한화 이글스로 등지를 옮겼다. 장기로 치면 차와 포는 물론이고 마와 상까지 떼어낸 셈이었다. 정상적인 시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넥센 히어로즈는 “예상은 예상일 뿐”이라는 말을 강한 힘으로 보여줬다.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 같던 SK 와이번스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건 것 역시 넥센 히어로즈였으며 어느 팀보다 싱싱한 새로운 영웅들을 발굴해 프로야구판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 역시 넥센 히어로즈였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전반기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었던 것은 아니다. 시련도 있었다. 화려하게 시작된 개막전의 기세를 살리지 못한 탓에 승보다 패가 두 배나 많아졌다. 몇 번의 연패가 거듭되기도 했다. 결국 4월 한 달 동안은 8승 19패를 기록했다. 패가 승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니 ‘참담하다’는 말이 과하지 않았다. 팀이 순항할 때는 인식하기 힘든 베테랑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에는 12승 12패로 5할 승률을 유지했다. 도약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 강한 넥센, 지지 않는 승부

주식시장과 프로야구 순위를 예측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도 없다. 하지만 힘



난한 시즌 초반을 넘긴 넥센 히어로즈의 야구는 분명히 ‘계산이 서는 야구’다. 어느 팀 못지않은, 아니 외려 더 훌륭한 선발진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선발 투수들의 투구가 안정됨으로써 몇 이닝을 몇 점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면 한 게임, 한 주, 한 달, 나아가서는 한 시즌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을 확실히 세울 수 있다는 뜻. 그런 점에서 보자면 차세대에 이스로 손꼽히는 고원준과 이적생 금민철을 필두로 한 넥센 히어로즈의 마운드는 그 어느 팀보다 높고 견고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 주축 선수들의 이탈이 전력 누수보다는 치열한 내부경쟁을 불러왔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중 하나다. 이름값보다는 실력



을 우선시하는 팀 분위기 덕분에 넥센 히어로즈의 모든 선수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강점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힘차게 공을 던지고 배트를 돌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 전반기 동안의 경험은 이들에게 ‘입에 쓴 약’으로 작용할 게 분명한 일. 다시 말해 이제 넥센 히어로즈는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 나머지 7개 구단 역시 후반기 대공세를 펼쳐며 물고 물리는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넥센 히어로즈에게는 분명히 힘이 있다. 그 어느 상대도 긴장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게 틀림없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팀, 세상 모든 야구단이 꿈꾸는 그 모습을 바로 넥센 히어로즈가 현실화시키고 있다. ㉞







## 감독은 선수를 품는 산맥이다

넥센 히어로즈 김시진 감독

선수 시절 그는 에이스였다. 한 시즌 25승 5패 방어율 2.00을 기록한 투수에게 에이스라는 칭호 외에 또 다른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어떤 투수였는지 기억하는 젊은 야구팬은 그리 많지 않다. '에이스 오브 에이스'인 최동원과 선동열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산이 그가 마운드에 서던 시대에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비운의 에이스'라는 달갑잖은 별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 성장하는 팀, 넥센 히어로즈

LG 트윈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목동구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아직 경기를 시작하려면 세 시간이나 남았지만 선수들은 운동장 이곳저곳에서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하고 있었고 코칭스태프는 덕아웃에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팬들에게는 한 시즌에 치러지는 133게임 중 한 게임에 불과할지라도 직접 그라운드를 뛰어야 하는 당사자들은 어제와는 다른, 다시 오지 않을 승부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혼자 짊어져야 할 감독이 자리 잡은 곳은 얼마나 더 무거운 분위기일까.

"반갑습니다. 김시진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은 해봐야 할 직업 세 가지가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해군 제독, 야구팀의 감독이라고 한다. 이들은 수많은 구성원을 혼자서 판단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카리스마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김시진 감독은 사람 좋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요즘 성적이 말이 아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전날까지 연패에 빠졌던 팀 수장과의 만남이었던 터라 선볼리 입을 떼기가 어려운 입장을 먼저 살펴주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기 이를 데 없었다.

"넥센 히어로즈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어서 자리 잡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지요."

김시진 감독의 책상에는 2군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기

록지가 놓여 있었다. "선수들의 이름값을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에 근거해 기용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증거였다. 그가 이렇게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누구든 열심히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보여준다면 이전의 경력과 관계없이 선발로 출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그 누구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기존 선수들은 자연스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아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팀의 전력은 자연스레 상승한다.

둘째, 새로운 스타의 등장은 더 많은 팬을 경기장으로 이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프로는 팬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명제를 누구보다 더 깊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김시진 감독은 "무엇보다 팬들에게 신선한 플레이를 선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야구의 아주 작지만 빛나는 단면이었다.

### 끈질긴 야구를 하고 싶다

에이스는 책임감을 즐길 줄 안다. '등판=승리'라는 공식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안다. 선수 시절 김시진은 바로 그런 에이스였다. 그리고 감독이 된 지금,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책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시즌 개막 직전, 선수들에게 열심히만 하면 단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때 선수들에게 한 약속에 대한 책임



“

처음 감독직을 맡을 때부터 끈질긴 야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패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팀,  
그래서 팬들로 하여금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팀이  
바로 제가 꿈꾸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과정에 있는 셈이고요.

”

을 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팀이 순조롭게 나아갈 때  
나 가능한 일이다. 감독의 뜻대로 진행되는 게임은 손으  
로 꼽을 만큼 적다. 아무리 절묘한 작전을 내리더라도 그  
라운드 안의 무수한 변수는 감독의 의도를 왜곡해버리  
기 일쑤다. 김시진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은 감독이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감독이 희생해야 선  
수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런 김시진 감독이 꿈꾸는 야구의 궁극적 지향점은 ‘납  
득할 수 있는 야구’였다.

“처음 감독직을 맡을 때부터 끈질긴 야구를 하고 싶었습  
니다. 패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팀, 그래서 팬들  
로 하여금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팀이 바로 제가 꿈꾸  
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과정에 있는 셈  
이고요.”

어제의 게임은 어제의 게임일 뿐, 오늘은 오늘의 전력으  
로 최선을 다하는 게 프로의 의무라며 감독실을 나가 덕  
아웃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선수 시절과 또 다른  
모습의 산마루를 닮아 있었다. 구름이 걷히면 드러날 수  
많은 골짜기를 거느리고 있는 아득한 크기의 산마루 말  
이다. <sup>TV</sup>





# 나의 히어로에게 묻다 Q&A



**Q1** 2군 캠프는 지옥의 훈련장이라고 하던데, 1군으로 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

▶ 영입1팀 임재두 사위가 황재균 선수에게

**A1**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체에 대한 감흥은 없었다. '1군에 합류하면 손목이 안아파야 하는데' 하는 생각만 했다. 부상만 없으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현재는 슬럼프인 것 같다. 조만간 좋아져야하고 좋아질 것이다.

**Q2** 투수들이 공을 전력투구하고 벤치에서 쉴 때 얼음찜질을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

▶ 구매팀 김상봉 과장이 배현찬 선수에게

**A2** 투수들의 경우 피칭을 하면 어깨와 팔꿈치 부분의 모세혈관이 파열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근육 및 인대 그리고 모세혈관 등이 더 이상 무리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이싱(얼음찜질)을 한 후 회복 훈련을 한다.

**Q3** 송지만 선수는 넥센 히어로즈의 든든한 베테랑 해결사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통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 안양지점 이지선 사위가 송지만 선수에게

**A3** 꾸준함이다. 그리고 야구 외의 생활은 대부분 하지 않는 편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게 컨디션 조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가 시간은 가족들과 보내는 편이다.

**Q4** 어웨이 경기에서 상대팀의 응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 어떤 심정인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 내수영업관리팀 송승창 사위가 오재영 선수에게

**A4** 사직구장 같은 경우 상대팀의 열렬한 응원을 보고 있으면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도 많은 팬들이 있지만. 극복하는 방법은 따로 없다. 상대팀 타자를 응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자를 삼진으로 잡을 경우 야구장이 매우 고요해지는데, 그때 기분이 최고다.

**Q5** 넥센 히어로즈는 어린 선수들과 고참선수들 사이가 각별하다고 하는데 혹시 사적 인 자리에서도 만나는지, 만난다면 무엇을 하는가?

▶ 서부지점 김현진 사위가 이승용 선수에게

**A5** 원정 경기에서는 고민이 있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는 후배들과 식사자리를 가끔 한다. 이런저런 조언도 하지만 자신감을 주려고 애쓴다.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당연한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 별게 다 궁금한 팬들을 위한 보너스 Q&A

**Q1** 타석에 섰을 때 자신의 응원가가 들리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제 내 타석이구나 하는 생각, 아무래도 기분이 업 된다. 더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는 이유다. - 강정호

**Q2** 같은 팀 선수의 장점 중에 가장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누구의 무엇인가요? 좀처럼 흔들림 없는 이승용 선수의 상황 대처 능력과 경험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이다. - 장기영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에 대한 넥센사우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입니다. 내 눈에만 크게 보이는 좋아하는 선수의 독특한 습관부터 '찍' 소리를 내며 부러진 방망이를 사줄 쌈짓돈은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지까지. 그간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아모아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에게 물었습니다.



**Q6** 한화 시절부터 클락 선수의 팬이다. 클락 선수는 배팅 글러브를 안 끼기로 유명한데, 한때 배팅 글러브를 끼고 나왔었다. 그 이유가 있나?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대전지점 박제용 사위가 클락 선수에게

**A6** 방망이의 그림감을 느끼기 위해 안 끼는 편이다. 전에 배팅 글러브를 사용했던 경우는 추운 날이 아니면 손바닥 통증이 있을 경우다.

**Q7** 금민철 선수는 경기가 이길 때나 질 때 모두 표정이 똑같다. 의도적인 건가, 아님 원래 그런 건가? 경기가 잘 안 될 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 인사노무팀 유다희 사위가 금민철 선수에게

**A7** 원래 표정이 없다. 말수가 없는 편이라 항상 무표정하게 있는 편이고 덕분에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중한다.

**Q8** 경기 중에 방망이가 곧잘 부러지곤 하던데, 방망이는 선수가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건가? 부러지면 아까울 것 같은데 어떤가?

▶ 인사노무팀 노병구 대리가 김민우 선수에게

**A8** 구단에서 기본적으로 마련해주고 훈련이나 경기 중 파손되는 배트는 구단에서 교환을 해준다. 가끔 손에 맞거나 가지고 싶은 배트가 있으면 자비로 구입하기도 한다.

**Q9** 경기 후 TV에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준다. 선수들도 자신을 모습을 볼 때가 있을 텐데, 느낌이 어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물이랑 어떤 쪽이 더 나은 것 같은가?

▶ 미주팀 박성신 사위가 고원준 선수에게

**A9** 신인이라 그런지 좀 어색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경기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런지 TV로 볼 때 꽤 멋있어 보이기도 한다. 실물과 화면에비친 모습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가끔 실물이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팬들이 있다.

**Q10** 데드볼을 맞았을 때의 기분이 어떤가? 많이 아플 텐데 안 아픈 척한 적도 있나?

▶ 영입2팀 김윤희 사위가 김일령 선수에게

**A10** 투수가 던지는 150km 가까운 볼의 경우 맞으면 그냥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든다.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 근육이 많은 부분은 고통이 덜하다. 관절 근처에 맞으면 참할 간다. 그리고 야구공에 맞으면 몸에 야구공 모양과 똑같은 흉터가 생긴다. 적어도 1주일 이상 가는데 야구공에 있는 실밥 까지도 몸에 흉터로 남는다. 절대 아픈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다. 원한다면 데드볼 맞을 기회를 줄 수도 있다.

**Q3** 경기에서 더 멋있게 보이려고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니폼이나 장비들을 한번 더 챙긴다. 경기에 들어가서는 경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 강정호

**Q4** 선수들의 이상형이 궁금해요(여자 연예인을 예로 들자면)?

걸그룹이 대세이니 만큼 걸그룹이 좋다. 특정한 인물은 애프터스쿨 유이다. 김성갑 코치님의 딸이기도 하지만 아주 예쁘다. — 황재균, 강정호, 고원준



# 글로벌 기술력, 전문가를 사로잡다

신제품 N9000, N8000, N6000 기자 시승회

넥센타이어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의 자동차부품연구원 시험장에서 자동차 관련 전문기자를 초청해 신제품 시승회를 열었다. 지난 3월 출시된 신제품 UHP타이어 N9000, N8000, N6000을 폭스바겐 골프, BMW 5시리즈, 기아 포르테·K7에 각각 장착하여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넥센타이어의 초고성능 UHP타이어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하는 주요 제품군. 2010년 야심작인 세 개의 신제품이 날카로운 기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 글로벌 기술력으로 모두를 사로잡다

넥센의 초고성능 UHP타이어 신제품 시승회가 열린 곳은 천안의 자동차부품연구원. 이곳은 트랙 너비 30m, 길이 1km인 직선로를 기본으로 한쪽 끝에 반경 50m의 선회로를 갖추고 있다. 또한 블록, 시멘트, 아스팔트, 돌길 등의 다양한 조건에서 젖은 노면, 요철 구간, 비포장 등 다양한 도로 환경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넥센타이어는 이날 직경 16인치 이상, 편평비 55인치 이하, 속도등급 W급 이상(270km/h)의 초고성능 타이어인 2010년 신제품 N9000,

N8000, N6000을 선보였다.

먼저 기자단은 실차평가팀 박성표 차장이 모는 K7에 탑승해 N8000의 성능을 테스트 했다. 35년 경력의 국내 자동차드라이빙 1세대인 박성표 차장은 K7에 기자단을 태우고 직진고속주행, 슬라럼 등 다양한 운전 상황을 구현했다. 고갈 사이를 헤집는 슬라럼 구간에서는 N8000의 안정적인 코너링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급제동과 순간 가속, 요철부분에서도 직진 안정성 및 안락한 승차감이 돋보였다.





실차평가팀  
박성표 차장





이어 기자들은 4대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타이어 성능을 체험하는 개별 테스트 시간을 가졌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는 “탄성은 자동차의 성능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N8000과 N9000은 탄성이 매우 좋다. 두 제품의 트레드기슬이 놀랍다”며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자동차생활의 조현우 기자는 “차가 도로에 붙어서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N6000의 마찰력과 탄성이 뛰어나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거친 드라이빙 스타일을 보여준 중앙선데이 김기범 객원기자는 “N9000을 장착한 골프를 몰아보니 넥센타이어가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할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세계적 수준의 넥센 UHP타이어

이날의 백미는 바로 빗길 성능 테스트. 20여 분간 물을 뿌려둔 노면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을 하는 이 테스트에서 넥센의 UHP타이어는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의 제동거리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8000

을 장착한 K7을 이용하여 진행했을 때에는 제동거리 차이가 1m 밖에 되지 않아 참석한 기자단은 물론 관계자들도 다시 한 번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다. 실차 평가팀 신영동 팀장은 “빗길에서의 제동력은 컴파운드 기술과 실리카재료가 핵심이며, 이 분야에서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은 세계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테스트가 끝나고 제품별 주요 기능 및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에 기자들 모두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호평을 이어갔다.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한운석 팀장은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제품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타이어 품질 요구수준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K5 승용차에 넥센타이어가 100% OE를 납품했다는 것은 승차감과 내구성 등 제품력의 세계적 수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세계적 기술력 프리미엄 UHP, N9000 N8000 N6000

N9000은 ‘Z’ 형상의 패턴 디자인을 적용해 강한 견인력과 우수한 초고속 주행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의 리브는 노면과의 끊임없는 접지



## Best Selling 타이어를 위하여

글 김성민 UHP개발팀

UHP타이어란 Ultra High Performance Tire의 약자로 고급 세단, 스포츠카 등에 장착되어 그에 상응하는 성능을 구현해주는 편평비 55이하의 초고성능 타이어를 말한다. 이번에 개발한 N9000, N8000, N6000 역시 이러한 UHP타이어로써 최고 성능의 타이어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러한 초고성능 타이어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개발 계획부터 최종 평가 및 상용화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 개발이 진행되며, 이 중 하나의 단계를 진행하는 데에도 수십 번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는 일도 다반사다.

또한 공신력 있는 성능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유명타이어를 분석하고 평가했다. 독일 제품 테스트 시에는 최고의 테스트 드라이버를 초빙하였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현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며칠씩 대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개발 과정이 힘들다 보니 팀원들이 지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RE개발 총괄 조명국 이사 이하 UHP개발팀은 신뢰와 돈독한 팀웍, 그리고 젊은 열정으로 “Best Selling 타이어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며 서로를 격려하였다. 그 결과 야심작인 UHP Premium Pattern N9000, N8000, N6000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개발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그 인고의 땀방울에 대한 자긍심도 크다. 이번 신제품이 넥센타이어의 주축 제품이 되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 넥센인으로서 큰 감동과 뿌듯함을 느낀다. 이번 성과는 누구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넥센타이어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값진 노력의 산물 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개발에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を 전하고 싶다.



# attern

## N9000




## N8000

## N6000

로 길이가 증대되어 민첩한 조종안정성과 최대의 그립력을 제공한다. 또한 5 피치 트레드 조합으로 기존 상품 대비 피치수를 늘어 패턴 소음을 분산, 최소화 하였으며, 실시간 소음 주파수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고속에서도 정숙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

**N8000**은 OBCS(Optimized Belt Contour System)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벨트 부의 형상을 최적화해 노면과의 접지부 압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승차감 향상은 물론 균일한 접지 형상 유지로 빗길 및 마른 노면에서 제동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N8000은 비대칭 트레드 패턴을 채용하여, 연속적인 숄더 블록의 최적 배열로 마른 노면은 물론 젖은 노면에서도 뛰어난 핸들링과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Inside부와 조밀한 숄더 적용으로 핸들링 성능 및 제동성을 강화시킨 Outside부가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로운 성능을 보여준다.

**N6000**은 기존 제품 대비 접지면이 넓어 고속주행 시 우수한 제동 및 핸들링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실리카 컴파운드가 트레드 패턴과 이상적으로 조화되어 노면과의 밀착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V형 패턴과 4개의 직선형 그루브는 고속 주행 성능과 함께 배수성을 강화하여 수막현상을 최소화시킨다. 





# NEXEN



## 세계 타이어 트렌드를 보다 '2010 라이펜 에센'

넥센타이어 N9000 등 UHP제품 큰 인기





### 브랜드별 개성 뽐낸 전시 부스

6월 초의 독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중충하고 흐린 유럽의 날씨가 아닌 한국의 가을을 연상시켰다. 특히 전시회가 개최된 도시 에센은 전시기간 내내 맑고 청명한 날씨를 선사해 관람객들의 기분까지 상쾌하게 했다.

에센은 넥센타이어 유럽법인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할 수 있는 작은 도시이다.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에센은 옛 서독 지역의 주요 석탄 산지였고, 많은 한국의 광부들이 이곳에서 고달픈 청춘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에센은 전 세계 산업박람회의 중심으로 탈바꿈해 이제는 더 이상 젖빛이 아닌 정갈하고 세련된 녹색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국제전시도시 에센에서 세계 최대의 타이어 박람회가 탄생하고 발전해왔다.

넥센타이어는 1994년 첫 참가 이후 라이펜 에센을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대표적 UHP제품인 N9000, N8000을 비롯, 유럽지역 주력 판매제품인 N6000, CP641, Winguard Sport 등이 전시되었으며, 2011년 이후 출시예정인 신제품 5종도 함께 선보여 딜러들과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넥센타이어가 최초로 개발한 N3000 15시리즈 제품은 행사기간 내내 각국의 바이어와 일반 관람객의 주목을 끌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넥센타이어는 미쉐린(michelin)과 피렐리(Pirelli) 등 메이저 타이어 제조업체가 이웃한 중심 부분에 부스를 설치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경쟁업체들도 부러운 눈빛을 보낼 정도로 지난 참가 때보다 넉넉한 공간을 확보(가로 20m 세로 12m)하고, 복층으로 설계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부스 내부는 회사의 상징색인 보라를 위주로 흰색, 검정, 녹색 등으로 포인트를 주고, 총 24개 타이어패턴이 전시된 1층에는 힘과 속도의 상징 허머(Hummer)와 람보르기니(Lamborghini) 차량을 함께 전시해 빠르게 성장하는 넥센타이어의 진취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부스 전면에는 대형 LCD 모니터를 설치해 홍보영상과 CF, 자동차 대회 후원영상 등을 시연하고, 제품설명 또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디지털 기기의 활용으로 효과를 배가시켰다.

‘2010 라이펜 에센(2010 Reifen Essen)’은 독일 에센(Essen)에서 짝수 해마다 개최되는 타이어와 관련부품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박람회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나흘간 열린 이번 박람회에도 세계 42개국에서 600여 개 업체와 2만여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다.







# 2010 Reifen Essen

## 세계 타이어 트렌드 한눈에

화려한 브랜드별 부스로 세계적 박람회다운 면모를 과시한 '2010 라이펜 에센'은 세계 타이어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었다. 우선 비대칭의 타이어패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일반적으로 트레드에서 안쪽 면은 빗길주행성을, 바깥쪽은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을 좌우하는데 이러한 영역별 기능적 분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비대칭패턴 설계기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었다.

또 다른 트렌드로는 친환경 제품의 강세를 들 수 있다. 친환경 제품 기술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을 최대화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쉐린과 요코하마는 아로마, 오렌지 오일과 같은 친환경 재료를 적용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각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성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소음과 빗길 환경 등을 규제하는 EU라벨링 제도가 이슈화되었다. 이미 한 업체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제품의 성능 등급을 부각해 홍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세계시장에서 타이어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U라벨링 제도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타이어시장으로 확산될 예정이므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핵심적 과제이다.

- 1 타이어 관련 업체는 물론 유럽지역의 일반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넥센 타이어.
- 2 각국 타이어 딜러들의 상담요청이 쇄도해 눈코 뜰 새 없었던 상담실.
- 3 세계 유수의 타이어브랜드가 집합했던 '2010 라이펜 에센'.
- 4 넥센타이어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과 타이어 딜러들.





중국제품의 성장세도 눈에 띄었다. 한국산 제품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패턴과 제품라인업,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업체뿐만이 아니라, 중국업체에 대한 경계도 늦추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넥센타이어 부스를 찾은 딜러나 관람객들은 2011년 신제품을 비롯한 UHP타이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이를 기회삼아 신규거래선 확보를 위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고, 예상보다도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 테이블에 앉은 직원들은 쉴 새 없이 딜러들의 질문에 답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다. 이는 그간 유럽시장 진출 노력의 성과가 인지도 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010 라이펜 에센’을 관람하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 타이어시장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간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부하고, 그 결과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2010 라이펜 에센’을 통해 본 무대는 훨씬 더 광활했다. 눈 앞의 경쟁자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세계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공략하기 위해 고민한다면 2년 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에센의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유럽법인과 본사 물류팀, 제품디자인팀, 선도개발팀 등 이번 ‘2010 라이펜 에센’의 성공적 전시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땀 흘린 넥센인들. 이번 박람회의 성공적 참여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경험을 발판삼아 유럽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새로운 힘을 얻었으니 기분 좋게 박람회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 ㉞







신차용 타이어시장 질주하는 넥센타이어

## 부산국제모터쇼에서 빛나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와 타이어가 각축을 벌인 부산국제모터쇼. 그 가운데서도 넥센타이어는 기아차의 야심작인 K5 승용부문에 OE를 전량 공급, 그 모습을 드러내 이슈가 되었다. 내로라하는 브랜드 속에서도 앞선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으로 분위기를 주도한 현장을 담았다.

### 기아차 K5의 다이내믹 드라이빙을 완성하다

넥센타이어가 OE(신차용 타이어)시장에서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기아자동차가 야심작에 선보인 K5에는 넥센타이어의 주력제품 CP662가 장착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K5는 외제차와 같은 유려한 외관으로 출시 전부터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주목받았던 차량이다. 관람객들은 K5 외에도 넥센타이어가 장착된 신모델에 관심을 보이며 그 조화에 주목했다.

기아차가 올해 승부수로 내놓은 중형 신차 승용부문에 넥센타이어의 제품을 장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최근 5~6년 간 넥센타이어 제품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초기에는 아반떼 급의 준 중형 제품 이하에 주로 납품이 이뤄졌으나 3~4년 전부터는 소나타, K7 등 중대형 이상에도 높은 비율로 장착되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연구 인력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첨단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넥센타이어의 선진적 경영방식과 그 성과를 현대·기아차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자동차 업계의 러브콜 쇄도하다

넥센타이어는 K5 승용부문에 OE를 전량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 출시한 K7에도 16, 17인치 제품을 전체 물량의 70% 가량 공급하고 있다. 또 소렌토R, 스포티지R 차량의 신차와 포르테, 서울, 모하비 등에도 넥센타이어 제품이 공급된다.

현대차에서도 넥센타이어의 제품은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대차가 자랑하는 주력차종인 YF소나타는 신차 출시부터 넥센타이어가 장착돼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산타페와 뉴베르나에도 넥센타이어가 공급되고 있다. 현대차가 곧 시장에 내놓을 그랜저 후속(HG), 그리고 소형 쿠페(FS)와 유령형 소나타(VF), i30 후속(GD), 산타페 후속(DM), 소형 MPV(SO) 신제품에도 잇따라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현대차 OE공급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GM대우에도 윈스툼과 쉐트라에, 쌍용차가 출시할 코란도C에도 넥센타이어가 장착된다.



### 기술력이 자신감의 원천

넥센타이어의 OE시장 돌풍은 무엇보다 넥센타이어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든든한 배경이다. 최근 내놓은 신제품에는 그동안 국내 타이어사들이 구현하지 못한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됐다. 신제품은 타이어의 내구성을 좌우하는 스틸벨트 부분에 OBSC(Optimized Belt Contour System; 벨트형상 최적화시스템) 기술을 적용, 노면과 타이어의 압력을 최소화 해 승차감과 내마모성, 소음 방지 기능을 크게 높였다

현재 넥센타이어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130여 개국에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다. 미주시장을 비롯해 유럽과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넥센타이어를 만나볼 수 있다. 넥센타이어는 수출시장의 매출이 전체매출의 7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시장에서의 성장세는 넥센타이어 전체실적 향상에 중요한 포인트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UHP 제품군을 중심으로 2004년 3%에서 지난해 32%에 달할 정도로 프리미엄 제품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부분에서 더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넥센타이어는 세계의 완성차업체에 OE납품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출시장에서도 첨단제품군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 현재 유럽, 미국 등의 수출시장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계 타이어시장은 고부가 제품군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넥센타이어는 차량의 고성능화 추세와 그에 걸맞은 운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고속 주행과 안정적인 핸들링이 탁월한 제품으로 세계 주요업체들과 당당히 경쟁할 계획이다. ⑩







## 안전한 휴가를 위한 자동차 셀프 점검법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더운 계절에는 사람도 지치지만 자동차도 지치므로 항상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는 관리하는 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 기본적인 점검 상식 정도는 알아두자.



### 소모품 예방주사 놓기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기능도 복잡하고 전자제어 방식이 많이 보급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점검은 전문적이기보다 기본적인 상식과 대처방법을 익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휴가 시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세밀한 예방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휴가를 떠나기 전 소모품 등을 미리 교체, 준비하여 난처한 상황을 예방하고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 각종 오일의 교체나 보충은 물론 냉각수도 꼭 확인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다.

### ● 냉각수 & 워셔액

타기 시작한 지 6~7년 이상 된 자동차는 미리 트렁크에 수돗물을 한 통 넣어두고 필요에 따라 보충하는 것이 좋다. 이동 중에 비가 내리거나 다른 요인으로 앞유리가 더러워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워셔액도 미리 통을 가득 채우고, 필요하면 한 통 정도 여분을 준비해도 괜찮다.



### ● 윈도우 브러시

윈도우 브러시 고무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품이지만 고무가 낡아 물 자국이 남으면 시야를 가려서 상당히 불편하다. 휴가철에 휴게소 등에서 각 브랜드별로 무상점검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아 보는 것도 좋다.

### ● 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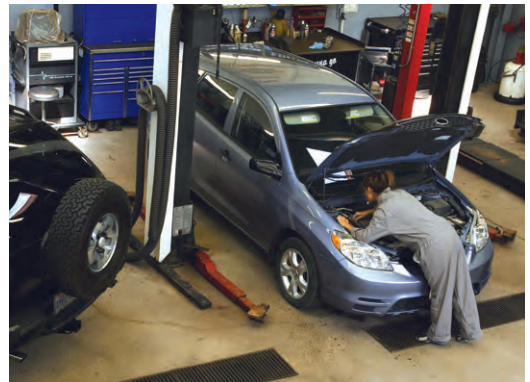
교환한 지 오래되었다면 전체적인 마모나 편마모가 심한지 확인하고 미리 교체한다. 특히 스페어타이어를 준비해두면 비상 시 요긴하므로 상태를 확인하여 공기압을 채워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으면 고속 운행 시 과열될 수 있고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적정 공기압을 맞추어야 한다. 미리 정비업소에서 미세한 실 펑크를 체크해 볼 수도 있다. 조금씩 바람이 빠져나가는 경우 휴가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타이어 점검은 필수다.

### ● 에어컨

더운 여름철 여러 명이 승차한 경우 에어컨의 불량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미리부터 점검하자. 에어컨에서 심한 악취가 나면 에어컨 필터 등을 교환하여 냄새를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곰팡이 냄새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 ● 배터리

배터리도 중요한 소모 품목이다. 약 2년 정도 지나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므로 미리 교환하는 것이 좋다. 조금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소홀하게 다루면 여행지에서 고장 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자동차 오래 타는 비결, 휴가 후 AS

- **인푼, 깨끗하게 청소하기** 산과 들, 바다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 차는 그만큼 더러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차량의 도장을 손상시키는 새의 오물이나 나무진액 등은 휴가지에서도 바로 닦아내야 한다.
- **차체 하부 점검하기** 바닷가에 다녀왔다면 차체의 하부도 신경 써야 한다. 바닷물에 닿은 부분을 씻어내지 않으면 염분으로 부식될 위험이 있으며, 산악지역이라면 돌맹이가 튀거나 바위에 긁혀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 **트렁크 정리하기** 휴가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실었던 트렁크도 정리를 해주자. 계속 싣고 다닐수록 내용물이 상해 곰팡이가 피거나 냄새가 날 수 있으며 또한 연료도 무게만큼 더 들게 된다. 짐을 정리하고 기존의 안전도구 등을 다시 잘 챙겨 넣도록 한다.
- **고생한 타이어 보살피기** 장기간 여러 종류의 노면을 달린 타이어도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타이어의 마모정도를 따져 교체하거나 운행량에 따라 앞뒤를 바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공기압도 체크해야 한다.

### 비상 시 필요한 물품 챙기기

떠나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물품도 꼼꼼히 체크해 보자. 비상 삼각대, 손전등, 사고 표시용 스프레이, 김 서림 방지 스프레이, 소화기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점퍼케이블이나 기본적인 공구 세트도 필수이며, 사고를 대비해 보험회사와 비상연락처도 챙겨두자. 아이들이 있다면 비상약도 필요하지만 자동차 내에서 덮을 수 있는 간단한 담요나 먹을거리를 준비하면 지루함을 덜 수 있다. 특히 차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 책이나 놀이거리 등도 함께 가져가면 더욱 알찬 여행이 될 수 있다.

운전자의 졸음은 최악의 조건이므로 졸음을 쫓는 껌이나 음악 CD를 준비하고 조수석에 앉은 가족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 출발 전날 잠을 설치거나 불안정하면 운전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면을 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가족 두 명 이상이 번갈아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상키도 꼭 준비하여야 한다. 휴가지에서 잘못하여 잃어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닌 만큼 여분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시동을 켜고 잠시 워밍업을 할 동안 차에서 내려 한 바퀴 돌면서 타이어 공기압 등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자. 운전자와 자동차는 무리한 만큼 꼭 함께 쉬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 2시간 운전 후에는 휴게소에서 20분 정도는 꼭 쉬고 출발하기 바란다. 졸릴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졸리거나 아이들의 소변을 해결한다고 갓길에서 정차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중 고속도로 갓길에서 나는 2차 사고가 적지 않고 사망사고도 많은 만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㉞





대구란 그런 곳이다. 약간의 에너리로 현혹할라치면 '치아라' 하지만 안면을 익힌 사람에게는 '알아서 주이소' 라는 주문을 넣는다. 그래서 처음 터를 닦는 사람에게는 성벽이 견고하지만 일단 성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타이어테크 대구 시지점은 이제 만 2년을 넘겼다. 김규환 대표는 이제 성문이 어느 정도 열린 것 같다고 말한다. 20대 초반 자동차 정비부터 시작해 마흔에 이르도록 줄곧 타이어로 삶을 꾸려온 그지만 사업이란 역시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실, 근면 이상의 것은 없죠. 이른 아침에 열어 밤늦게 닫습니다. 처음엔 전 단지도 뿌리고 이것저것 했지만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출퇴근 시간에 열려 있는 걸 보고 왔다고 해요. 자리를 잡은 요즘도 8시 30분에 열어서 11시까지지는 매장을 지킵니다."

대구지하철 사월역 출구와 맞닿아 큰 길에서도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매장은 빗으로 빗어놓은 것처럼 정갈했다. 김규환 대표보다 더 부지런을 떠나는

두 명의 직원이 쓸고 닦은 보람이다. 이런 부지런 외에도 개점 당시부터 고객을 설득해 온 것이 하나 더 있다. 싼 타이어를 싸게 사기보다 좋은 타이어를 합리적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 그래서인지 시지점은 고성능 타이어 판매율이 월등하다.

"넥센타이어는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모든 타이어를 직접 써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하죠. 예전에는 망설이던 고객들도 프리미엄 타이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요."

김 대표는 최선을 다하면 안 될 게 없다고 믿는다. 금방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성실하게 노력하면 흐렸던 하늘도 파랗게 미소를 드리울 것이라고. 그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잘 가르쳐 내년부터는 새로운 매장 오픈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그렇듯 비구름도, 번개도 몰고 오겠지만 그예겐 '성실' 과 '끈기' 외에도 '경험' 이란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러니 처음 그때처럼 묵묵하게 때를 기다린다면 날은 분명 겹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⑩

타이어테크 대구 시지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407-7번지 Tel 053-794-8845

타이어테크 대구 시지점 ●

# 하늘이 파랗게 갓습니다





캠핑을 가려거든 짜깁거리는 시계를 풀어놓아야 한다. 시간을 가늠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숫자와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 대신 빛과 바람, 아이의 웃음과 아내의 콧노래를 기준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혼을 빼놓는 재미가 아니라, 흠어지고 달아나려는 것들이 제자리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즐거움을 느긋하게 생각해 보면서 즐거운 수고를 계획하는 것이다.





Let's go *Camping*

# 캠핑!

## 따분한 일상에 찍은 굵은 느낌표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텐트 앞까지 밀려오는 파도소리를 밤새 듣는다. 아이와 함께 단둘이 떠난 캠핑에서는 한 침낭에 들어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이 모든 것들이 캠핑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다.





캠핑을 시작한 건 2008년 여름부터다. 소백산 자락에 있는 '상가 야영장'이라는 곳에서였다. 친구가 갑자기 '오랜만에 텐트 치고 하룻밤 보내보자'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가지고 간 장비라고는 인터넷으로 산 싸구려 텐트와 양은 냄비, 휴대용 가스버너가 전부였다. 대학시절 지리산에서의 야영 이후 처음 경험하는 캠핑이었다.

친구나 나나 모두 서툴렀다. 겨우겨우 텐트를 쳤던 것 같다. 10분이면 간단하게 칠 수 있는 텐트를 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렸다. 비지땀을 흘리며 텐트를 치고 냄비에 밥을 짓고 이것저것 만들어 저녁을 먹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텐트 앞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며 친구와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빼곡히 뿌려져 있었다. 손을 내저으면 후드득하고 떨어질 것만 같았다.

이후 친구는 캠핑 마니아가 됐다. '오랜만에 텐트 속에서 하룻밤 보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캠핑은 중독성이 강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운치가 콘도나 리조트에서 느끼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친구는 캠핑에서 돌아오자마자 캠핑 관련 사이트를 뒤졌고 동호회에 가입했다. 텐트와 타프, 침낭, 코펠, 스토브 등 이런저런 장비도 장만했다. 그리고 가족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망설이던 친구의 아내도 몇 차례 남편과 캠핑을 다니더니 이제는 친구 못지않은 마니아가 되었다. 아이 역시 주말이면 캠핑을 가자고 졸라댄다고 한다.

"밤이면 모닥불 가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지. 나는 회사 일에 대해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내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도 캠핑을 다니면서 알게 됐다구."

나 역시 캠핑에 빠져들었다. 주말이면 텐트를 들고 밖으로 쏘다녔다. 지난주에는 계룡산으로 캠핑을 다녀왔다. 여덟 살 난 아이와 함께 단둘이 떠난 캠핑이었다. 아이에게 아빠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캠핑장에 도착해 아이와 함

께 텐트를 쳤다. 함께 폴대를 맞추고 팩을 박았다. 아빠가 팩을

잡고 아이가 고무 해머로 망치질을 했다. 아이의 콧등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아이는 분명 즐거워하고 있

었다. 저녁이 왔고 아이와 함께 밥을 지어먹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아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를 나누었다.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아이

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빠가 가장 미울 때와 좋을 때

는 언제인지를. 아빠와 아들 사이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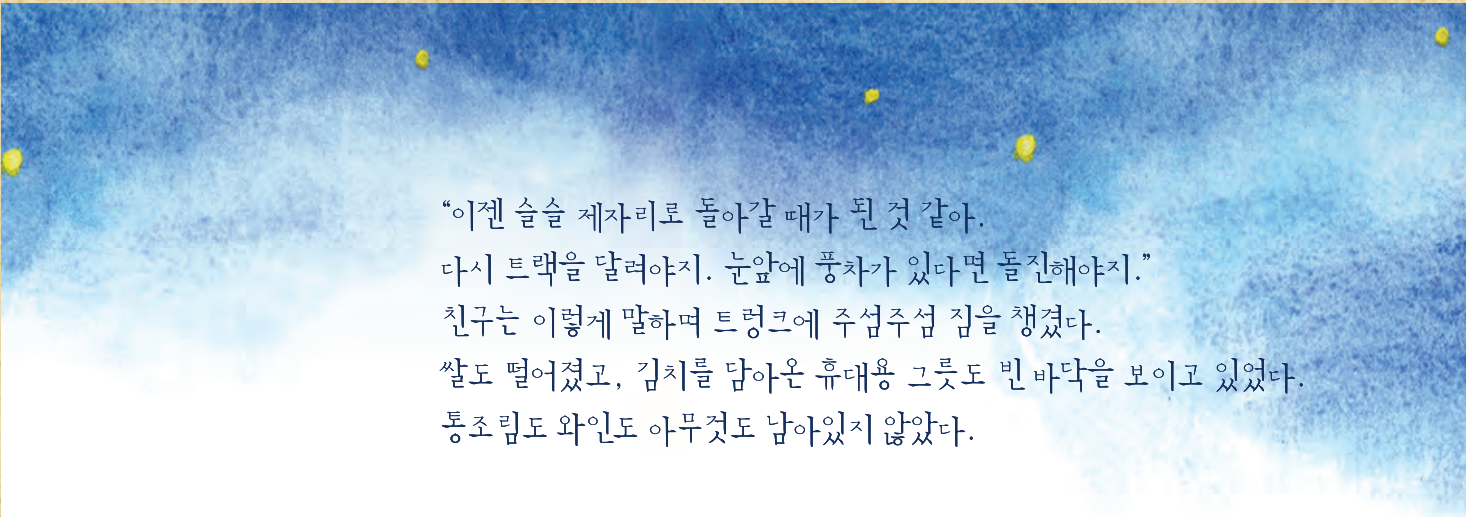
지난겨울, 친구와 함께 떠났던 열흘간의 제주

도 캠핑도 잊지 못한다. 소설을 쓰는 친구는 원

고지에서, 가난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젠 슬슬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다시 트랙을 달려야지. 눈앞에 풍차가 있다면 돌진해야지.”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트렁크에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쌀도 떨어졌고, 김치를 담아온 휴대용 그릇도 빈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통조림도 와인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올겨울은 너무 지루했어. 기념해야 할 일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어. 애인과 헤어지지도 않았고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어. 친한 친구의 시끌벅적한 결혼식도, 생일파티도 없었어.”

나 역시 3주간 무지막지하게 이어진 마감을 겨우 마무리했을 때였다. 작업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았다. 여기저기 서류뭉치와 책과 카메라와 컵라면 등이 어질러져 있었다. 나는 화분에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내 어놓았다. 어항의 물을 갈고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친구와 함께 완도로 가는 서해안고속도로에 올라 있었다. 자동차 트렁크에는 텐트와 코펠, 버너, 슬리핑백, 쌀, 김치, 와인, 몇 개의 통조림, 책과 CD가 가득 들어 있었다.

제주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우도로 향했다. 우도의 경우, 서빈백사 해수욕장과 하고수동 해수욕장에서 야영이 가능한데, 번잡한 서빈백사 해수욕장보다는 하고수동 해변이 텐트를 치기에 낫다. 하고수동 해변에 텐트를 설치하고 나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저녁 요리를 시작했다. 메뉴는 제주 흑돼지 삼겹살. 해변에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하고 프라이팬에 삼겹살을 구웠다. 와인도 곁들였다. 수평선에 어화가 하나 둘 불을 밝혔고 밤하늘에는 별이 돋기 시작했다. 바람도 잔잔했다. 온도계를 보니 기온은 섭씨 4도. 방한복을 입고 있으니 추위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사정이 달라졌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섬은 세찬 바람에 떠밀려 태평양의 어느 한 귀퉁이로 난파될 것만 같았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성난 짐승 같은 바람이 밤새 텐트를 뒤흔들었고 우리는 10분 혹은 30분마다 잠에서 깨어 폴과 팩과 당김줄을 확인해야 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잠을 청하길 포기했다. 랜턴을 켜고 ‘카우보이 정키스’와 ‘개비지’, ‘찰리 헤이든’을 들으며 와인을 마셨다. 나는 요제프 쿠텔카의 사진집을 보았다. 바람을 닮은 이 사진작가는 ‘프라하의 봄’이 실패로 돌아가자 1970년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 평생을 무국적자로 유랑하며 살았다. 그리고 평생 집시를 찍었다.





그의 사진에 가슴이 먹먹해져 고개를 들어 바라 본 수평선 너머에는 어화가 이승의 것이 아닌 것처럼 환했다. 우도의 텐트 아래에서 밤새 바람 소리를 들으며 불안했다. 하지만 그건 약간은 다행한 일이기도 했다. 어느 시인이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고 읊조렸듯, 바람 소리에 몸서리친다는 일, 그건 내가 적어도 살아있고, 살아있고 싶어 한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괜찮아. 바람에 우도가 떠내려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키며 우도에서 며칠을 보냈다.

“이젠 슬슬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다시 트랙을 달려야지. 눈앞에 풍차가 있다면 돌진해야지.”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트렁크에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쌀도 떨어졌고, 김치를 담아온 휴대용 그릇도 빈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통조림도 와인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일이라도 없다면 이토록 따분한 일상을 어떻게 견뎌올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렇지 않아?”

텐트는 우도에서의 며칠 밤을 그럭저럭 버텨주었고 우리는 다시 서울로, 일상 속으로 돌아왔다.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며칠을 보내는 일, 사람들은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 말에 개의치 않으려다. 나는 우리가 사는 몇 십 년의 시간 가운데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니깐. 그리고 그것이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증거이며 생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도 믿는 사람이니깐. ㉞





Let's go *Camping*

캠핑페인 가족이 말하는



# 캠핑의 정석

2~3년 전후로 캠핑인구가 부쩍 늘었다. 온라인 동호회의 어마어마한 가입자가 그 관심도를 나타낸다. 캠핑페인이라 불리는 여행전문가 김산환 씨. 그는 최근 아내 윤소영 씨와 함께 '꿈의지도'라는 여행전문 출판사를 열었다. 캠핑페인 가족이 직접 겪고 느낀 캠핑의 혜택을 간증하기 위한 것. 마침 그의 가족이 평창 솔섬오토캠핑장으로 캠핑을 간다는 소식에 카메라를 들고 뱅크 따라나섰다.



###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스마트한 가족의 여가

딱히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운 것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있다. 둘 다 갖지 않는 이상 무엇을 고르든 아쉬운 선택이다. 그러나 두 명의 멋진 구애자 중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하는 그런 나쁜 상황도 있지만 찜뽕이나 자장이나 고민하지 않고 찜자면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상황도 있다. 많은 아버지들은 취미와 가족 사이에서 고민한다. 대부분 둘 다 취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놓이길 원하지만 그게 쉬운 일인가. 그랬다면 홀로 산에 오르고, 홀로 낚시터에 앉아 있고, 홀로 자전거를 타는 아버지들이 훨씬 줄어들었겠지.

반면 나쁜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치환하는 스마트한 아버지들이 있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도 줌는 능력자들이다. 그들이 선택한 취미 중 최고로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로 캠핑일 것. 아버지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던 도시의 생활을 떠나 잠시나마 권능감을 맛보고, 아내는 오랜만에 뭐든 알아서 척척 하는 남편과 칭얼거리지 않는 아이들 덕분에 여유를 맛보며, 아이는 자연에 퐁당 빠져들어 배우고 익히고 자란다.

캠핑페인 가족이 그런 캠핑의 혜택을 알게 된 것은 4~5년 전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해강이가 제법 밖에서 노는 법을 알아갈 때쯤이었을 것이다. 오랜 기간 산 전문지의 기자로, 여행가이자 여행칼럼니스트로 삶을 꾸려가던 김산환 씨도 혼자 돌아다니는 건 이제 충분하다고 느꼈을 테고,

“알래스카에서 캠핑을 한 적이 있어요. 북위 50도의 밤이었죠. 지상낙원이 여긴가 했어요. 워낙 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라 짧지만 아름다운 여름이 시작되면 일주일이며 열흘간 밖에서 살아요. 가족들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돌아가면 나도 해 봐야지 생각했죠.”

이후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을 시작했고 여행전문가 김산환 외에 캠핑페인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

자연에 나오면 아이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캠핑장에서 만나는 다른 엄마들도 그래요.  
아무리 캠핑장비가 발달해도  
호텔이나 펜션보다 불편한 캠핑이  
즐거운 이유는 자연에서 뛰노는  
아이들 때문이라고요.”

”



#### 소나무 우거진 아날로그 공간 활용법

캠핑페인 가족이 캠핑장에 도착한 시간은 12시경. 김포에서 평창까지 약 3시간이 걸리니 전날 짐을 대략 꾸러놓고도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어 9시쯤엔 출발을 했을 것이다. 차가 평창 솔섬오토캠핑장에 들어서자 해강이는 먼저 내려 어디론가 뛰어가고 김산환, 윤소영 씨 부부는 자리배치며 캠핑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물 맑고 경치 좋은 금당계곡을 끼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솔섬오토캠핑장. 해강이는 당연히 계곡으로 뛰어들었고, 부부도 계곡 바로 옆 소나무가 우거진 자리에 장비를 꺼내놓고 본격적으로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텐트와 타프를 치고 가구를 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캠핑용 텐트와 타프는 구축이 만만치 않아 초보캠퍼는 부부싸움 나기 십상이란다. 구축이 끝나면 본격적인 아웃도어 라이프가 시작된다. 자연은 넓고 놀 것은 많으니.

“남편이 해강이와 많이 놀아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캠핑까지 오니 아빠를 아주 좋아하죠. 저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안 좋아했는데 자연에 나오면 아이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캠핑장에서 만나는 다른 엄마들도 그래요. 아무리 캠핑장비가 발달해도 호텔이나 펜션보다 불편한 캠핑이 즐거운 이유는

자연에서 뛰노는 아이들 때문이라고요.”

엄마아빠가 캠핑준비를 하는 동안 혼자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며 놀다가도 종종 아빠에게 더 잘 놀 방법을 상의하곤 한다. 텐트 어디에선가 소음을 다해야 했을 끈 하나와 빈 페트병으로 올챙이도 잡았다. 솔섬오토캠핑장은 계곡을 끼고 있어 트레킹과 물놀이, 낚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한 쪽에는 자그마한 동물농장도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이나 토끼, 오리, 닭, 염소 등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 타닥타닥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해가 산등성이에 숨어들면 저녁준비를 시작한다. 저녁내 쓸 장작을 정리하고 화로에 불을 붙여 요리를 한다. 캠핑요리가 따로 있을 만큼 야외에서도 의외로 다양한 메뉴가 가능하다. 지역의 싱싱한 재료로 별미를 즐길 수도 있고, 더치오븐이나 화로를 이용해서 불 맛이 살아 있는 별미를 선사할 수도 있다. 이날의 메뉴는 돼지 앞다리 살 꼬치구이와 더치오븐에 구운 로스트 치킨. 꼬치구이처럼 재료손질에 손이 많이 가는 메뉴는 미리 준비를 해오면 현장에서는 끼우기만 해서 불에 앉으면 편하다.

캠핑페인답게 세계 곳곳에서 캠핑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는 우리나라 캠핑의 특징을 ‘먹캠’, 즉 요리와 먹는 것이 중심인 캠핑이라고 말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1900년대 초부터 오토캠핑이 활성화된 캠핑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먹는 것은 샌드위치 등으로 간소화하고 트레킹이나 낚시 등 레저 활동에 열중한단다.



먹는 것도 좋지만 밖으로 나온 만큼 온 가족이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은데 아직 그런 캠핑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이 그는 아쉽다. 그의 책 중 하나인 <캠핑페인> 한 귀퉁이에서 본 그가 생각하는 캠핑의 정의가 떠올랐다.

“누군가 캠핑이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가족’이다. 이 땅에서 캠핑만큼 가족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캠핑만큼 아빠의 자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캠핑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다. 그래서 캠핑은 가족이다.”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고 나니 완연한 밤이다. 술기운이 더해져 새까만 숲 속의 밤을 반딧불이처럼 밝히는 화로가 갈수록 어여빠진다. 해강이는 밥을 후다닥 먹고 랜턴 아래서 만화 삼국지에 푹 빠졌다. 두런두런 들려주는 김산환 씨의 캠핑경험담이 더해지니 익어가는 것이 꼬치인지 분위기인지 알 필요가 없어졌다. ㉞



### 캠핑의 순서

**집 심기** : 캠핑 장비는 그 종류와 양이 만만치 않다. 차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꼭 필요한 것인지 욕심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자리 잡고 텐트 치기** : 화장실과 취사장의 거리, 소음정도와 그늘 여부 등을 따져 최적의 자리를 잡는다. 텐트와 타프는 바람의 방향, 동선, 그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한다.

**가구 및 조리도구 배치** : 테이블, 키친과 조리도구, 화로와 그릴의 적당한 자리를 잡고 밑 준비를 한다. 텐트 안에도 매트리스와 침낭을 펴놓고 밤에 필요한 물품들도 정리해 놓는다.

**조명과 불 피우기** : 어둠기 전에 조명을 준비한다. 캠핑장을 고루 비출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화로나 모닥불 피우기는 화상이나 화재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요한다.

**요리하기** : 캠핑장에서는 주로 남자들이 요리에 더 욕심을 내고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여건이 좋지 않으니 레시피를 단순화하고, 최소한의 재료로 순발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보자.

**취침과 정리** : 불을 완전히 끄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잠 자리에 든다. 집으로 갈 때에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고 코펠은 깨끗하게 닦아 말한다.



## 안 놀아 봤으면 말을 마세요

캠핑장의 놀이에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할 금단의 놀이도 없고, '좋은 엄마아빠'가 되기 위해 지루함을 참아내는 유아적 놀이도 없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흥이 나는 놀이가 캠핑장에선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놀아 봤으면 의심하지 말라. 놀만큼 놀아본 캠핑 고수들이 그 생생한 즐거움의 증인으로 나섰다.

### 추천합니다!

**홍천 살둔캠프** 조선 세조, 사육신의 후예들이 세상을 등지고 들어온 살둔은 '살 만한 둔덕'의 줄임말이다. 얼마 전까지도 오지라 불릴 만큼 문지 않는 자연이 아름다우며 폐교를 이용한 캠핑장이 있다. 바로 맛달은 물 맑은 내린천에서 레프팅과 카약, 건지, 플라이, 루어낚시, 물놀이가 가능하다.

주소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읍전2리 183번지

문의 033-434-3798 홈페이지 [saldun.invil.org](http://saldun.invil.org)

**해남 땅끝오토캠핑장** 땅끝마을 옆에 있는 캠핑장으로 연중 캠핑객들의 인기를 누리는 곳이다. 캠핑장과 해수욕장이 50m 거리로 전망이 좋으며 해수욕과 낚시, 산책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주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14-1

문의 061-530-5258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국내 최초의 캠핑장이자 고급스런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주말이나 성수기는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만 망상해수욕장, 추암해변, 묵호항과 가까워 물놀이하기 좋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393-39

문의 033-534-3110



물에서 놀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여름철 가장 반가운 놀이터는 단연 물가다. 장소와 수심에 따라 캠핑장에서도 바다낚시, 민물낚시, 천렵, 물장구, 갯벌체험, 카약, 래프팅 등 놀거리는 다양하다. 단, 물놀이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갖추어 입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계곡은 아이에게 너무 깊지 않은 무릎 정도가 적당하다. 아이와 함께 잡은 물고기는 매운탕을 끓여 먹어도 별미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시 살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 추천합니다

**지리산 달궁야영장** 삼한시대 마한의 별궁 궁터로 신라 시대에는 화랑도 훈련장으로 쓰인 너른 야영장이다. 지리산 반야봉에서 노고단을 걸쳐 바래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반선에서 달궁에 이르는 5km 호젓한 트레킹 코스는 신록 우거진 숲길을 걷는 즐거움이 있다.

주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274번지

문의 063-625-8910 홈페이지 jiri.knps.or.kr

**청태산 자연휴양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중에서도 숲 좋고, 시설 편리하기로 유명하다. 잣나무와 전나무 등 아름다워 침엽수가 우거져 절로 몸도 마음도 푸르러지는 곳이다. 특히 주말에 운영하는 숲해설 프로그램과 목공예체험, 염색체험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정상까지 오르는 트레킹은 물론 산하리를 휘감고 돌아가는 5.2km의 임도 코스는 산악자전거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주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4

문의 033-343-9707 홈페이지 www.huya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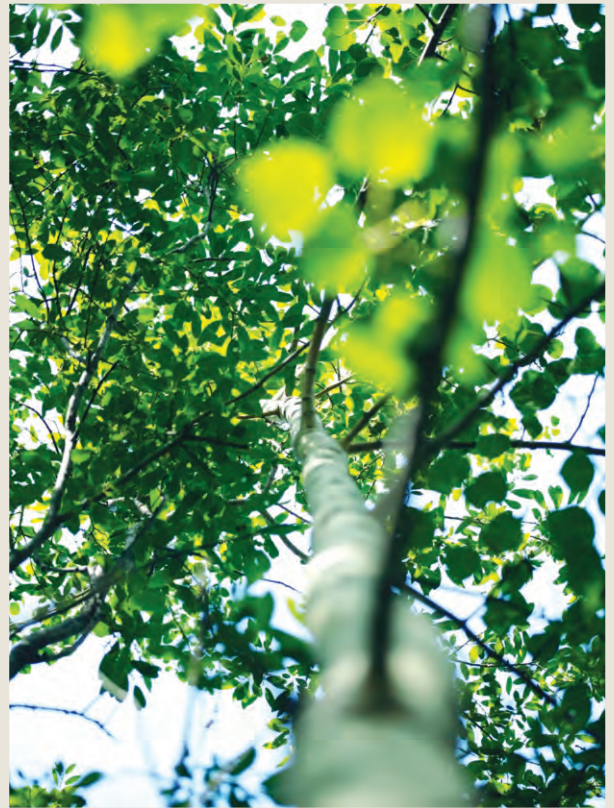


# 숲

봄부터 가을까지 산은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며 캠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등산은 물론 산과 계곡을 따라 걷는 트레킹, 산악자전거, 곤충채집, 식물관찰 등 그 품만큼이나 재미도 풍성하다. 그중 특

## 에서 놀기

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트레킹은 자연휴양림이나 산 속에 자리한 캠핑장이라면 쉽게 할 수 있다. 장거리 트레킹을 계획했다면 지도와 물, 간식 등을 준비하고 체력 안배에 신경 쓰도록 한다. 최근 캠핑장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자전거를 가져오는 캠퍼도 많다. 무겁지만 그만큼 즐거움도 크다.





# 맛

‘먹캠’, ‘먹핑’이란 말이 있을 만큼 먹는 재미도 캠핑의 묘미다. 집에서는 밥상을 받기만 했던 남편들도 캠핑의 즐거움을 알고 나면 밥상을 차릴 줄 알게 된다고. 캠핑장이 국내 곳곳에 있으므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잘 활용하면 캠핑 밥상을 저렴하고 품질 좋은 메뉴로 꾸밀 수 있다. 예를 들면 동해 망상으로 캠핑장에서는 신선한 오징어 요리를, 평창 솔섬오토캠핑장에서는 송어회를, 양양 갈천오토캠핑장에서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다면 호텔 요리가 부럽겠는가.

## 있 게 놀 기



### 추천합니다!

**파주 산머루농원 캠핑장** 파주 산머루농원 안에 마련된 캠핑장은 규모는 작지만 토종 와인 저장고를 견학하고 시음도 해볼 수 있다. 산머루 와인은 전통술 명주장인이 빚은 파주 특산품이다. 감악산 기슭에 있는 캠핑장 주변은 산머루가 주렁주렁 달린 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직접 와인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으며, 머루잼, 머루푸딩 등을 만드는 체험도 가능하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67-1번지

**문의** 031-958-9558

**홈피** [www.seowoosuk.com](http://www.seowoosuk.com)

**원주 치악산 구룡야영장** 야영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새말나들목에서 멀지 않은 곳에 횡성축협이 운영하는 한우프라자 있다.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맛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새말사거리에서 횡성방향으로 15분이면 유명한 심순녀 안흥 찐빵집도 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900번지

**문의** 033-732-4635 **홈피** [chiak.knps.or.kr](http://chiak.knps.or.kr)



### 캠핑마니아가 추천하는 캠핑장 베스트 놀이

꼭 거창한 놀이만 재밌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캠핑카페 캠핑퍼스트, 캠핑&바베큐 회원들은 캠핑 속의 소소한 재미거리를 추천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먹에서의 휴식’이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는 천으로 만든 간이 침대인 해먹은 특히 아이들이 그네처럼 놀기 좋은 아이템이다. 배드민턴도 인기다. 부피나 무게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넓은 캠핑장을 활용해 서툴룩을 주고받기 좋다.

혼자만의 놀이로는 영화보기, 책읽기, 혹은 멍 때리기(?)도 캠퍼들이 즐기는 놀이. 가족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는데 사진 찍기 놀이만 한 게 없으므로 카메라도 꼭 챙길 것.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추천한다. 땅따먹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공기놀이 등 가족들이 용기종이 모여 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좋은 사람들의 느낌있는 이야기

## Feeling

### 잠시만 비읍니다

아주 잠시만, 해와 달이 두어 번 눈을 깜박할 사이입니다.

거추장스런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가볍게 떠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만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이지 한 여름밤의 꿈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별에 그을려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짧은 여름을 오래 기억하려면 자꾸만 마주 보아야 할 테니까요.





# 스트레스를 날리는 조금 오싹한 방법

낮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도전을 거부하게 만든다. 하지만 따기 어려운 열매일수록 달콤하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귀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도 생겨났을 테고, 이렇듯 아름다운 도전을 위해 넥센타이어 사우들이 문경에 뿔었다. 스트레스 해소용 도전치고는 조금 오싹하지만 공중부양 정도는 해야 도전이란 말이 떳떳하지 않겠는가.

함께한 아들 구매팀 강은비, 품질보증팀 김재영, 서명곡 사우









## 우리는 짚라인 타러 간다

짚라인은 양 편의 나무 또는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의 트롤리를 와이어에 걸어 빠르게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레포츠이다. 원래는 하와이와 남미의 원주민들이 열대 정글의 뱀이나 벌레, 독이 있는 식물을 피해 밀림 사이를 이동하던 교통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되었다. 짚라인이라는 이름은 와이어를 타고 이동할 때 ‘지지직’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졌다.

하늘을 품을 기회를 벅센타이어 사우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구매팀 강은비 사우와 품질보증팀 서명곡, 김재영 사우가 과감히 짚라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소는 산록이 아름다운 문경 불정자연휴양림. 이곳에 아시아에 하나뿐인 짚라인 센터가 있다. 일찌감치 도착한 사우들은 짚라인 탑승 동의를 작성하고 헬멧 등의 장비를 착용했다.

이동용 트럭을 타고 산길을 따라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해 심장이 두근두근 두방망이질했다.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서명곡 사우가 하늘을 가리켰다.

“저게 짚라인이예요? 줄이 너무 얇은 것 같은데, 몸무게 많이 나가면 못 타는 거 아니예요?”

금속 와이어의 최대 하중은 11.8톤으로 웬만한 무게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거기다 가이드인 ZG들이 매일 아침 직접 타보며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매달 한 번씩은 와이어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배중수, 권용식 ZG가 사우들을 안심시켰다.

## 허공을 나는 짜릿함

1번 코스에 도착하니 아름다운 불정산의 산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멋진 경관에 감탄하던 것도 잠시, 반대편에 보이는 도착 테크를 보자 아찔한 높이에 절로 얼굴이 굳는다. 출발 테크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순간에도 먼저 가라며 서로의 등을 떠밀었다. 그래서 즉석에서 마련한 간단한 몸 풀기 퀴즈! 정답은 모르지만 상품이 걸려 있다는 말에 모두가 막무가내로 ‘정답!’을 외친다. 결국 찍기의 달인 김재영 사우가 답을 맞혔다. 그 상품은 짚라인을 가장 먼저 타는 기회. 이게 무슨 상품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해 봐도 이미 웃은 던져졌다. 김재영 사우가 먼저 출발 테크에 섰다. 길이 이어지는 것처럼 상상하며 걸어나가라는 ZG의 조언대로 천천히 발을 뗀다.

“재영씨 파이팅! 남자답게 확 뛰어내려요!”

“첫 스타트가 좋아야 해요. 힘차게, 아자 아자!”

겁도 없이 힘차게 뛰어내리는 김재영 사우. 지지직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가 싶더니 계곡을 가로지르며 순식간에 건너편에 도착했다. 이어 서명곡 사우가 나섰다. 평소 겁이 없어 놀이기구도 잘 탄다지만



ZIP





- 1 퀴즈를 맞추고 기뻐하는 김재영 사우.
- 2 묘기를 보여주는 배중수 ZG.
- 3 게임을 순서를 정하는 사우들.
- 4 트럭을 타고 정상으로 이동하는 중.
- 5 인증서를 받고 즐거워하는 사우들.

짚라인을 실제로 보자 살짝 겁을 먹었던 서 사우. 트롤리를 와이어에 걸자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후우, 하아.’ 그리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 출발. 처음엔 두 손으로 줄을 꼭 잡은 채 눈도 못 뜨더니 중간쯤에서는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여준다.

문제는 강은비 사우. ZG들과 가라, 못 간다로 한창 실랑이를 벌였다. 한 발짝을 남겨놓고 주저하는 사이 ZG가 와이어를 살짝 들어 올리자 “깽”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날아올랐다. 열걸에 한 출발치고는 깔끔하게 성공. 그새 자신감이 붙었는지 2번 코스부터는 강은비 사우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 숲길 코스를 모두 가뿐하게 통과했다.

3번 코스부터는 중급으로 40m나 길어지고 높이도 높아졌다. 자신감이 차오르던 사우들의 얼굴에 급격한 먹구름이 드리운다. 그래도 이 코스는 9개의 코스 중 가장 속도가 빠르지만, 경치도 가장 좋기 때문에 꼭 타봐야 한다고 ZG들이 응원했다.

### 고소공포증 완벽 탈출

정신없이 즐기다 보니 어느덧 반이 지났다. 이제는

먼저 뛰겠다고, 더 멋지게 뛰겠다고 아우성이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뒤 바로 6번으로 이동했다. 계곡을 따라 활강하는 코스로 위에는 숲, 아래에는 계곡이 기다리고 있어 마치 밀림을 연상케 한다. 뽕뽕하게 솟구친 나무 사이를 날다 보면 저절로 타잔이 된 듯하다. 한결 표정이 여유로워진 사우들은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계곡을 가로지른다.

코스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다. 두 손을 놓고 하늘을 보고 눕는 7번 코스와 풍선 불기 게임이 진행되는 8번 코스도 신나게 통과, 드디어 마지막 관문에 도착했다. 전 세계에 10곳뿐이라는 360m 길이의 짚라인 중 하나가 바로 9번. 이곳에서는 배중수 ZG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고 나섰다.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안전 멘트를 날린 뒤 힘차게 출발했다. 물구나무 서 듯 거꾸로 몸을 돌리고 양팔을 옆으로 뻗은 채 빙글빙글 돌면서 와이어를 따라 활강한다. 멋진 모습과 담력에 절로 박수가 터져 나온다.

이제는 사우들 차례. 짚라인을 체험하는 내내 출발을 무서워했던 강은비 사우도, 풍선을 가장 열심히 불었던 서명곡 사우도, ‘남자’ 라서 먼저 뛰어야만 했던 억울한 김재영 사우까지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비행을 선보였다.

그렇게 9개의 코스를 모두 끝내고 원점으로 돌아온 세 사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으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느라 왁자지껄하다. 수료증을 받으며 다음엔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시 오리라 다짐하며 문경을 나섰다. 비록 걱정으로 시작한 체험이지만 짜릿한 추억을 가슴에 품은 멋진 하루였다는 사우들. 일상을 뒤흔드는 도전에 대해 되새긴 하루였을까. 도착했을 때보다 더 힘찬 발걸음으로 나서는 사우들의 뒷모습에 활력이 넘쳐 보였다. 10

# LINE



### 혁신 에너지이저 공장혁신 사무국 이승주 사무국장

지천명을 바라보는 묵직한 나이에도 스무 살 꽃피 같은 피부의 소유자로 액면가는 20대요, 마음은 10대 소년같이 순수한 미중년 중의 미중년이다. 특히 넥센타이어 TPM 리더인 이승주 사무국장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발전된 환경에 행복함을 느끼는 능력자! 또한 자상하고 다감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항상 가정에서도 꽃향기를 풍기니 그대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본다. 미중년 이승주 사무국장!

- 추천인 공장혁신 사무국 문정섭 대리



꽃보다 탐스러운 그대

## 넥센 미중년을 찾아라

조인성의 9등신보다 아름다운 5등신을 본 적 있는가? 짐승들의 식스팩 부럽지 않은 일근육과, 엄친아의 화려한 스펙보다 알짜배기 혁신업무로 빛나는 그 남정네. 바로 넥센의 아름다운 미중년들이다. 벌써부터 소문이 자한 넥센 미중년의 비결을 속속들이 파헤치다 보면 우리네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공고를 내자마자 빗발치듯 쏟아진 추천서를 고르고 골라 엄선한 넥센의 대표 미중년 5명을 소개한다.



### 마지막 로맨티스트 공장혁신 사무국 임한성 직장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 오십대.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매사에 열정을 불사르는 그다. 비록 이팔청춘은 아니지만 일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을 자랑하는 임한성 직장.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의리의 사나이.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형수님과 20대 청춘처럼 낭만적인 데이트를 즐기고, 이벤트도 수시로 거행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이기도 하다.

- 추천인 정련파트 박한기 직장



## 부처도 울고 가는 미소천사

제품평가팀 김기현 팀장

그의 얼굴은 언제나 환하다. 그 부처와 같은 온화한 미소로 보는 사람마저 저절로 웃게 하는 미소천사 김기현 팀장. 그와 대화를 나눌라치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솟아나니 그와 이야기 나누려는 사람들로 양산IC가 정체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한 작은 것에도 칭찬으로 북돋워주고 실수가 있어도 힘내라 격려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니 이것이 바로 일할 맛 나

는 회사 아니겠는가. 그런 김기현 팀장은 그림이면 그림, 악기면 악기 예술방면에도 재능이 뛰어나니 꽃미남, 미중년을 찾자 한다면 적임자가 바로 그이다.

- 추천인  
제품평가팀원들



## 완벽한 그 사람 정련파트 압출공정 김순아 직장

작업장이 찌렁찌렁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 날카로워 보이는 미간의 주름마저 멋진 김순아 직장.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말투는 부드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지만 오래 일하며 지켜본 이들은 알리라. 그 단단한 외면 속에 숨겨진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업무에 몰두하며 때론 타인의 실수까지 포근히 안아주는 배려할 줄 아는 남자, 김순아 직장. 그뿐이 아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실천하듯 남몰래 하는 봉사활동도 이미 오래. 거기다 뚜렷한 이목구비, 늘씬한 몸매까지 다 가졌으니 그대는 정녕 욕심쟁이 우후훗!

- 추천인 베일에 싸인 누군가

## 마음이 예뻐야 진짜 미중년 공무팀 원동파트 강길모 파트장

비록 얼굴은 탤런트 이계인과 똑같이 닮았지만, 마음씨만큼은 어느 누구 못지 않은 미중년 강길모 파트장.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코미디 연기의 달인인 이계인 씨처럼 항상 파트에 웃음을 선사하며 기분 좋은 작업환경을 만드는 리더 중의 리더이다. 언제나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모두를 포근히 감싸주니 팀원들은 그를 믿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에는 정확하고 단호한 그지만 슬픈 사연을 들으면 절로 눈시울이 붉어지는 말강말강 젤리 같기도 한 그 사람. 겉과 속 모두 아름다운 강길모 파트장을 미중년으로 강력 추천한다.

- 추천인 원동파트 이경진 사우







## 사랑으로 그리는 행복 한 접시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 넥센타이어 동부지점 이현구 대리 가족이 인사동에 뒀다. 인사동의 핫플레이스인 쌈지길 체험공방에서 도자기 페인팅을 하기 위해 주말 나들이를 나선 것. 동그란 접시 위에 사랑을 그린 이현구 대리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함께한 이들 동부지점 이현구 대리 가족

### 알콩달콩 이 가족이 사는 법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다. 이현구 대리와 그의 아내 홍승은 씨가 4살 차이인 줄은, 그리고 연상연하 커플인 것도. 그래서였을까. 시종일관 이현구 대리는 개그맨 뺑치는 유머를 구사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홍승은 씨는 거기에 화답하며 웃음을 보였다. “제가 원래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남편한테 간섭도 하지 않는 편이고요. 남편이 영업을 하다 보니 귀가가 늦어지는 날이 잦지만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전공을 살려 장애인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사로 일하는 아내 홍승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깊은 신뢰 때문이었지만 아내의 무심한 듯한 성격에 애교 많은 딸아이 한 명 더 낳고 싶다는 이현구 대리. 그가 부인을 닮은 예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아들 건우가 “아빠, 아들은?” 하며 질문했다. “아들은 건우가 있으니까 됐지~”라고 말하며 웃음 짓는 이현구 대리.

이 부부의 보물 1호인 건우는 야구선수를 꿈꾸는 9살 소년이다. 넥센 히어로즈 경기를 관람하면서 야구의 매력에



폭 빠진 건우는 황재균 선수나 클락 선수처럼 되고 싶단다. 아이들의 꿈은 바뀌기 나름이지만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부부. 때문에 오늘 도자기 체험도 건우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알록달록 사랑을 그리는 법

본격적으로 도자기 페인팅을 위해 먼저 접시 고르기에 나선 가족. 건우는 접시와 화병, 컵 등 다양한 도자기 중에서도 코끼리 모양의 시계를 골랐다. 부부가 선택한 것은 크기가 다른 동그란 접시. 그다음에는 도자기 위에 그릴 그림의 본을 선택했다. 역시나 이현구 대리는 여자아이 캐릭터를 제일 먼저 골라 미래의 네 식구를 위한 접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건우는 목마를 타는 귀여운 캐릭터를, 아내 홍승은 씨는 여성스러운 펜 일러스트로 그려진 도시 풍경을 선택했다. 그 후 스펀지에 물을 묻혀 짙게 누르자 그림이 도자기에 새겨졌다. 신기해하는 건우에게 홍승은 씨는 색칠하는 법을 자상하게 알려주었고, 이현구 대리는 채색은 뒤로하고 물감이 묻은 붓으로 장난을 쳤다. 아빠의 개구쟁이 같은 모습에 건우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본을 뜬 그림에 채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림에 소질이 없던 이 가족도 쉽게 도자기 페인팅에 빠져들었다. 미술보다는 수영이나 태권도가 더 좋던 건우가 일찍 자기 그림을 끝마치고 이현구 대리의 채색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아빠! 이 부분은 제가 색칠할게요.” 자꾸만 더 그리고 싶은 건우의 마음을 이해하듯 이현구 대리가 아예 자기 접시를 건우에게 맡겼다. 건우는 마음껏 색칠한 후 흡족한 미소를 띠었다. 색칠이 끝난 작품은 후반 과정을 거쳐 2주 후에 집으로 배달된다.

건우는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코끼리 도자기가 집에 오면 자기 방에 걸어놓겠다고 벌써부터 자량이 대단하다. 홍승은 씨는 남자아이라서 미술 체험은 처음이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보니 자주 이런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작품이 완성되는 2주 후, 다시 한 번 이날의 추억이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도자기 위에 이 가족의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길 빌어본다. ㉞

“아빠!  
이 부분은 제가 색칠할게요.”  
자꾸만 더 그리고 싶은  
건우의 마음을 이해하듯 이현구 대리가  
아예 자기 접시를 건우에게 맡겼다.  
건우는 마음껏 색칠한 후  
흡족한 미소를 띠었다.



도자기 페인팅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와 체험해 볼만하다. 인사동 썸지길 지하나 전문 도자기 공방인 시간동 인클레이주([www.inclayju.com](http://www.inclayju.com)), 도자기 카페 인마이메모리(031-775-7005), 도자기 아틀리에 포슬린([www.foselin.com](http://www.foselin.com)) 등 곳곳에 체험공방이 위치해 있다. 비용은 종류에 따라 1회에 1~3만 원대로 감사의 지도에 따라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구워져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준다.



# 산그늘에 푹 빠져든 예비 심마니

금형관리파트 손부권 사우

일을 잘하려면 놀기도 잘해야 한단다. 하찮은 기계도 배터리가 다하면 잠시 충전이 되도록 시간을 주는데, 온몸과 온정신을 쏟아 일하는 사람이니 쉬어도 더 재밌게 쉴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금형관리파트 손부권 사우의 놀이터는 산이다. 이것저것 다 내주고도 큰 팔 벌려 포근히 안아주니 그 깊은 속내에 그도 푹 빠지고 말았다.





### 없는 길 만들어 오르는 약초산행

양산운동장 주차장에서 손부권 사우를 처음 만났다. 약초산행이라는 말로만 들어도 호기심이 동하는 취미의 주인공이 흔쾌히 이야기를 들려주마하니 옳다구나 나간 참이었다. 예정보다 이르게 도착해 어슬렁거리던 중 난생초면인 그를 이쪽에서 먼저 알아봤다. 별에 그을렸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중년임에도 시냇말로 도자기 피부라 말하는 뽕양고 안색 좋은 그였다.

손 사우의 안내를 따라 시내에서 멀지 않은 오봉산 입구로 이동했다. 능숙하게 채비하는 것을 지켜보니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한 가죽 보호대며, 상비약, 약초 캐는 도구 등 일반 산행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다. 등산로를 살짝 벗어날 것으로 생각했지 없는 길을 만들어 올라갈 줄이야. 어쨌든 성큼성큼 산을 오르는 그를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다. 고생이 무용하지 않게 이번만은 예상대로 였다. 등산로를 벗어나니 기대했던대로 보이지 않던 산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담쟁이인데 소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약성이 더 좋지요. 저것은 으름덩굴인데 감초나 대추와 다려 먹으면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무 열매는 개복숭아라고 하지요. 이것도 매실처럼 재워놓았다가 액기스를 내면 차처럼 마시기 좋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여행지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겐 다 이름도 안면도 있는 약초지만 문외한에게는 그저 풀이니 열심히 눈도장을 찍는 수밖에.

### 아버지는 가셨지만 산은 남았다

마침 봉황삼을 만났다. 봉황을 닮은 봉황삼은 본초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향약성분이며 원기 회복에 좋은 산삼의 일종이다. 손부권 사우는 익숙하고도 정성스러운 손놀림으로 봉황삼을 캐냈다.

“본격적으로 약초산행을 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산삼은 20뿌리 정도 캐어요. 대부분 가족들 입으로 들어갔죠. 산삼이 가장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경험이 많을수록 눈에 더 잘 띄겠지만 운도 따라야 하는 거고요.”

손부권 사우어렸을 때부터 산을 즐겼다. 본격적으로 산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애주가셨던 부친이 1999년에 간경화로 수술을 받으면서 그는 간에 좋은 것들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굴뚝이, 만들레, 천마까지 열성을 다해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 10년을 더 사시다가 지난해에 작고하셨다.

아버지는 가셨지만 산은 남았다. 찾으면 내어주는 마음 넉넉한 친구이며, 선부른 욕심을 다스리라 알려주는 스승 같은 산. 짐승이 나오기도 할 텐데 무섭지 않느냐고 했더니 해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고, 또 산의 품만큼 편안한 곳이 없단다. 정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심마니가 될 생각도 하고 있다. 말수도 적고 진중한 성품의 그가 호랑이 발자국 이야기며 신기한 경험을 풀어놓으니 아스팔트 태생의 도시내가들은 신기해 눈만 껌벅거리며 경청했다. 잠깐이지만 그와 약초산행을 하며 부러웠던 것이 건강해보이는 안색이다. 온갖 약초며 그 효능을 알고 있으니 스스로 몸을 다스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처럼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단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던 아이들도 지금은 말끔하게 나았다.

“업무로 피곤할 때는 약초 다린 물이나 봉황삼주를 한잔 마시고 자면 다음날 개운해 집니다. 사람들이 제 나이보다 꽤 아래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다 산 덕분이죠.”

간혹 약초산행에 관심을 보이는 동료들도 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아직 함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집에 가면 맛볼 수 있는 봉황삼주가 동료들을 즐겁게 하니 그 모습에 그도 다시 한 번 즐겁다. 산행을 마친 후 그간 갈무리 해놓았던 귀한 약초를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산그늘 아래서 손을 바쁘게 놀렸다. 그리고 보니 그도 어느새 산과 많이 닮아 보였다. ㉞



아버지는 가셨지만  
산은 남았다.  
찾으면 내어주는  
마음 넉넉한 친구이며,  
선부른 욕심을 다스리라  
알려주는 스승 같은 산.  
요즘은 그 산을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오후의 비타민 충전

# 한아름분임조의 과일 파티



주룩주룩 쏟아지는 땀에 기운은 쪽쪽 빠지고, 달아난 줄만 알았던 피로감이 어깨 위에서 노닥노닥. 천근만근 눈꺼풀과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여름날 오후 3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만성피로증후군에는 비타민이 보약이다. 푸른 잔디밭,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새콤달콤 즐거운 오후의 비타민 충전, 과일파티가 벌어졌다.

## 과일 깎기는 내가 선수 아냐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여름날 오후. 정련파트 한아름분임조원들이 본사 식당 앞 잔디밭에 모였다. 폭신한 잔디와 큼지막한 그늘을 고심해 선택하고, 여기에 피크닉용 돛자리를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웅기충기 모여 앉은 분임조원들의 모습이 마치 봄 소풍을 나온 학생들처럼 해맑다.

“좀 전까진 꾸벅꾸벅 고개를 끄더니, 이제 잠이 확 깨죠?”

“누가 졸았다고 그라노. 별이 좋으니까 생각 좀 한 거지.”

환한 햇볕 아래 주거나 받거나 말장난하는 모습이 익숙한 그들. 입사한 지 최소 5년이라는 조원들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니 이제는 서로가 직장동료이기보다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다들 자리를 잡았다 싶어 오늘의 선물인 과일 보파리를 풀었다. 수박, 멜론, 파인애플, 참외, 사과, 체리, 포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펼쳐지자 다들 새콤달콤한 향기에 침부터 고인다. 김형복 분임조장이 시원한 성격답게 과도를 집어 들고 깎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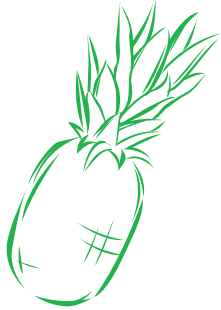
혹여 서투른 솜씨에 다칠까 선배들이 손 조심하라고 하자 “아이고, 제가 과일 깎는 데는 선수 아냐고” 하며 분위기를 띄운다. 자칭 선수라던 말처럼 솜씨도 그럴듯하다. 멜론이며 참외가 군기 든 이등병처럼 나란히 서서 대기 중이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은 법. 예쁘게 깎인 과일을 맛본 조원들이 아주 꿀맛이라고 난리다.

## 과일을 더욱 맛있는 먹는 법

드디어 여름철 과일의 절대강자 수박이 등장했다. 여름철엔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한 수박이 최고. ‘찍’ 소







리를 내며 시원하게 쪼개지는 수박을 하나씩 들자 다들 같은 생각이 번뜩 스치고 지나간다.

반달 모양의 수박을 하나씩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수박 빨리 먹기 시합을 벌이는 분임조원들. 하나, 둘, 셋! 시작 신호와 함께 ‘후루룩, 후루룩’ 좌우 위아래로 수박을 흡입하니 빨간 속살이 눈 깜짝할 새 사라졌다.

다음은 손아귀의 힘이 관건인 사과 쪼개기 시합이다. 손아귀 힘에 자신 있다는 분임조 최고 형님 장학순 사우가 나섰다. ‘으랏차차’ 젓 먹던 힘까지 짜내보지만 단단한 사과는 쪼개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결국 “칼로 금 줘 내보라”하며 귀여운 반칙을 시도해 성공한 장학순 사우. 다른 사우들 사이에서 반칙 논란이 오가는 사이 쪼개진 사과는 윤혜일 사우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와중에도 여념 없이 과일을 깎는 분임조장에게 분위기메이커 구재욱 사우가 농담을 던졌다.

“그렇게 과일 깎는 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흑시…”

팬스레 얼굴이 사과처럼 붉어진 김형복 분임조장. 이슈가 김 조장의 과거로 집중됐다. 시선이 몰리자 당황한 듯 “내가 원래 만들거나 이런 것 잘하잖아”라며 말끝까지 흐리는 김 조장. 순식간에 한아름분임조에서 한아름수사대가 된 조원들은 “수상합니테이, 형수님한테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 함 말해 보이소”하며 회유하기에 이르렀다.

얼굴을 붉히면서도 과일 깎기 바쁘다며 답변을 피한 분임조장은 끝까지 과거를 고백하지 않아 이번 똑똑, 분임조 습격사건의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김형복, 권순재, 김재중, 양정규, 강신호, 장학순, 윤혜일, 구재욱, 조철봉, 이현건 사우(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TPM활동 우등생, 한아름분임조

한창 비타민 충전에 열중하다 슬슬 배가 불러오자 그제야 과일파티의 이유가 궁금해진 사우들. 정련파트의 키맨인 박한기 직장이 TPM활동을 잘 이어가는 한아름분임조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자 신청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즉시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쏟아진다. 흐뭇하게 지켜보다 갑작스러운 신청자 공개에 쑥스러워하는 박한기 직장. 사우들은 그 고마움을 과일에 담아 박 직장의 입에 넣어주며 말보다 진한 마음을 표현했다.

생산팀 정련파트 소속인 한아름분임조는 Mixer 6호기에서 완제품 타이어 별로 각 부분의 요구 특성 및 타이어 제조공정 자체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료 고무와 각종 배합제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공정을 담당한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인내다. 실행 전 한 번 더 생각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땀뿜 뭉쳐 땀방울을 흘리는 한아름분임조지만 파트 특성상 카본 가루 및 각종 배합제로 쉽게 지저분해져 TPM활동이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TPM활동을 하다 보니 점차 성과가 좋아지고 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뤄낸 조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 박한기 직장. 기본적인 정리정돈부터 불합리 개선까지 차근차근 힘을 모아 하나씩 시행해나가다 보면 후행 분임조지만 선행 분임조의 실적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슬쩍 내비친다. 특히 강신호 사우와 양정규 사우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미라 TPM활동에 누구보다 열심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멋진 분임조원들 중에 총각이 넷이나 있다는 점이었을까. 구재욱, 이현진, 김제중, 권순재 사우 등 외모부터 능력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네 명의 총각들이 이 자리를 빌어 공개구혼까지 하며 왁자지껄 비타민 충전 습격사건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㉞







# 처음으로 하늘을 날다

출발을 3시간 앞둔 오후 6시 무렵, 가족과 함께 김해공항에 들어섰다. 해외여행은 물론 비행기로 떠나는 여행도 처음이라 적잖이 긴장되었다. 집합장소에서 만난 일행들도 나처럼 발장게 상기되어 있었으니 유독 내 기분이 묘했던 건 아니었나 보다.

밤 10시경 드디어 일행을 실은 마닐라행 비행기가 날아올랐다. 생애 첫 비행이라 창밖이 궁금했지만 아쉽게도 이미 어두워진 후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몇 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마닐라. 일행은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첫날을 맞이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따알 화산이었다. 마닐라의 명물 지프니를 타고 간 따알 호수에서 산 정상까지는 조랑말을 이용했는데, 안장이 어찌나 불편하던지 엉덩이에 불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상에서 따알 화산의 장관과 마주하자 고통은 눈 녹듯 사라졌다.

다음 날은 열대우림 속에 감춰진 듯 들어앉은 노천온천 히든 밸리에 갔다. 빌딩처럼 거대한 나무들이 늘어선 오솔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형 온천이었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으니 여행의 피로는 물론 묵은 피로까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저녁에는 마닐라 시내에서 필리핀의 역사와 영웅이 숨 쉬는 리잘공원과 스페인 군사 요새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산티아고 요새 등을 관광하고 자유 쇼핑을 즐겼다.

드디어 여행의 마지막 날, 쏠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에 아쉬워하며 팍사한 폭포로 이동했다. 원주민 2명이 노를 젓는 카누를 타고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 폭포수를 맞고, 급류를 따라 뗏목을 타며 아름다운 경치와 스릴을 즐겼다. 저녁에는 마닐



20년  
장기근속기념

마닐라 여행기



라의 야시장을 구경하고, 호텔로 돌아와 각자 본 것이며 먹은 것 등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아쉬운 마지막 밤을 보냈다.

막바지에 다다른 여행이 아쉬웠지만 돌아가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질 모습을 상상하니 공항으로 가는 길도 설레었다. 아내와 나는 평생 봐야 할 것을 다 볼 기세로 창문에 붙어 마음껏 창공을 느끼고, 구름 위를 만끽했다.

사실 출발 전 지독한 감기에 걸려 걱정이 많았는데, 여행 내내 입가에서 웃음이 가시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아픈 것도 모르고 며칠을 보냈다. 또,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었던 또 다른 가족인 동료들과 함께하여 더욱 즐거웠다. 이런 좋은 기회를 준 회사와 노조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인솔하느라 고생한 동료들에게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노라 고마움을 전한다. ㉞

\* 가을호에서는 25년 장기근속자들의 호주 여행기가 이어집니다.





휠 갤 러 리 임 경 대 표

##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문자 그대로 '오묘한' 데가 있다. 일부러 짝을 지으려 해도 쉽지 않은 좋은 궁합의 파트너를 만나게 될 때마다 그런 생각에는 무게가 더해진다. 물론 그 모습은 저마다 각양각색이다. 모르는 이가 보면 가족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닮아 바라만 보아도 든든한 사람이 있을 테고, 어디 하나 비슷한 곳은 없지만 호흡이 척척 맞아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조합도 있을 것이다. 여기 휠갤러리 임경 대표와 북부지점 박대현 사우는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멋진 파트너이다.

함께한 이들 휠갤러리 임경 대표, 북부지점 박대현 사우

## 패기로 앞장서고 관록으로 밀어주고

박대현 사우가 임경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지난 1월의 일이었다.

“처음 배치를 받고 한창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저 TV나 신문 등에서 보던 ‘영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크게 다를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이제 제법 ‘영업맨’ 티가 조금씩 배어나오는 그였지만 한없이 겸손하기만 하다.

“아네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랑 지금이랑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요.”

임경 대표는 박대현 사우가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아직 ‘필드’에서 ‘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에게 너무 과분한 평가가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임경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만나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심인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박대현 씨를 통해서 대리점을 내게 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경 대표는 신입이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경험을 갖춰야 할 박대현 사주를 통해 대리점을 개설했다. 물론 그전부터 만나왔던, 그리고 관계를 맺어왔던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이나 관계자도 적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미 타이어 업계에서 15년 동안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다 각종 자동차 동호회에서 첫손에 꼽히는 타이어 전문가인 그였기에 대리점을 개설하자는 제안은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빈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대현 사주의 손을 잡았다.

“대현 씨는 단 한 번도 제게 대리점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같이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고객이 오시면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 단단해지는 사이, Partner

북 부 지 점 박 대 현 사 우



그래서 임경 대표는 박대현 사우에게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는 다짐을 했던 것이다. “저를 통해 대리점을 개설하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기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밥값’을 했다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그만큼 믿어주신다는 사실에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기분 좋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무게가 담겨 있었다.

## 더 큰 세상을 이길 준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는 점이 적지 않다. 특히 박대현 사우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고 새롭게 바라보는 임경 대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게 된다”며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임경 대표님의 휠갤러리에 가면 모든 CI가 통합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은 물론이고 서류봉투와 편지봉투 역시 직접 제작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이든 항상 최대한 만족할 때까지 온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 역시 제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고요.” 임경 대표 역시 박대현 사위를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기운에 큰 힘을 얻는 단다.

“저 역시 영업으로 타이어 업계와 인연을 맺었으니까요. 박대현 사위를 볼 때마다 꾸준함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큰 덕목이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현 씨는 누구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더 큰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자로, 때로는 서로를 단련시키기 위한 스파링 파트너로 함께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임경 대표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넥센타이어의 대표 판매자가 되고 박대현 사우는 넥센타이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는 지점의 지점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자기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말이다. ㉞





# 볼수록 애교만점 딸내미들의 편지

딸 키우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아빠에게 '짜장정식'이란 맛깔나는 별명도 붙여주고, 담배 끊으시라는 귀여운 호통에,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맞는 건 아니라는 놀라운 통찰력까지 보여주니 말입니다. 어떤 분의 따님들인지 아마도 멋진 아빠를 뒹갔겠지요? 볼수록 애교만점인 딸내미들의 편지를 공개합니다.

## 〈헬로우 넥센〉 만추백일장이 열립니다

가을에 취해(술 아님) 저절로 우러나온 글을 모아 꾸미는 만추백일장이 열립니다. 무엇이든 꼬적거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계절, 혼자 보기 아깝다 싶은 글이 나오면 8월 31일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시, 수필, 편지글 등 형식이나, 주제의 제한은 없습니다. 한때 문학을 꿈꾸던 넥센인, 혹은 살다보니 저절로 시인이 되었다 하는 넥센인, 이 기회를 통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픈 넥센인도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선되신 분은 물론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소정의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지런히 응모하세요.  
soo0526@nexentire.co.kr

To. 짜장정식 아빠께

아빠~ 아빠한테 할 말도 있고 감사하

이렇게 편지를 쓰네요!

요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때문인지 저가 보기에도 조금 많이

까칠해진 거 같아요. --

원래 딸들은 애교도 많고 아빠랑

친구처럼 지내는데, 저가 요즘 화도 자주

내고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 대화 시간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저 성격이 아빠랑 닮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여행도 자주 다니고 외식도

많이 하면서 친구처럼 지냈는데 말이에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하

많이 노력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주말에 우리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주시려고 TV와 컴퓨터도 끄시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하계 공부하시는 것도요.

근데 저가 그런 아빠 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빠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저를 깨우면 저가 일어나기 싫어서 투정을

부리잖아요. 뒤늦게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아빠는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서로 노력하면서 상하지 말고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친한 친구 같은 부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

이제 저도 반년 정도만 더 있으면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전에 재밌는 데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생 되면 공부한다고 여행 많이 못가도

그래도 가끔 여행 갔던 예기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성적도 제 목표만큼 이뤄서 기쁘게 해드릴게요.

아빠랑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 주고 보완할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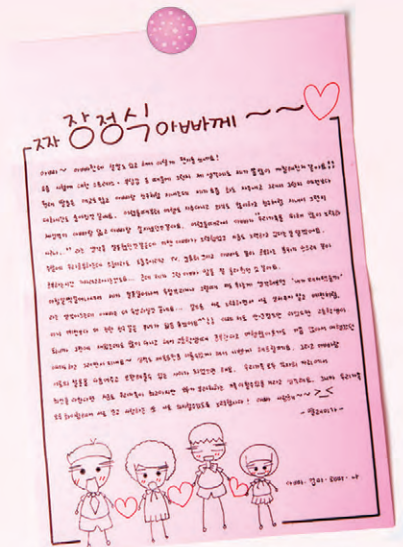
우리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도 최고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우리가족 모두 파이팅이에요. 서로 믿고 사랑하는,

또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

From. 딸내미가



생산팀 PCR파트  
장정식 파트장 자녀의 편지



To.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없어서 안될 진비예요!! ㅎㅎ

어버이님을 맞이하여 이렇게 씩니다.^^

먼저, 엄마!

이제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 힘들시기엔 했지만 그래도 이겨내주세요!!

중간고사는 못했으니까 기말고사때진~진~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꼭 받을게요.^^

그리고 이 말은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화내실 거 같아서 편지로 적어요.

수학하루원을 끝낼까해서요. 너무 늦게 마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따로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여고 시험 범위 너무 많다고 다른 문제집은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강의 들으면서 독학하볼까해요. 그냥 엄마도 생각한번 해주세요. ㅎㅎ

영어고치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저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엄마만 힘들게 해주셔서 죄송해요.^^

빨리 손 나을게요. 제 머리 감겨주시는 거 많이 힘드시죠? 아는데 계속 부탁드려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이젠, 아빠!

엄마 먼저 저였다고 빠지지는 마시구요. 제가 잘 빠지는 건 진짜 아빠담은 거 같아요.ㅋㅋ

아이고, 이제 말하기도 지쳤어요. 도대체 답배는 언제 끝낼 거예요?!

저 시집가서 아들 딸 낳는 건 보셔야 되잖아요.^^ 제발 건강 좀 생각하시고 즐겨주세요.

아! 그리고 신발 사주기로 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도도룩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립니다.ㅋㅋ 그리고 아빠들 드시고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ㅎㅎ

그리고 두 분께!

엄마 아빠 보면 정말 사소한 일로 싸우세요. 저가 본 입장으로는! 두 분 모두 금방 화를 내고 성질부리시는 거 같아요.

특히 아빠는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화내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시고

엄마도 배려 좀 해주주세요.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오케이?

우리가족! 지금처럼 화목하게 서로 배려하며 지내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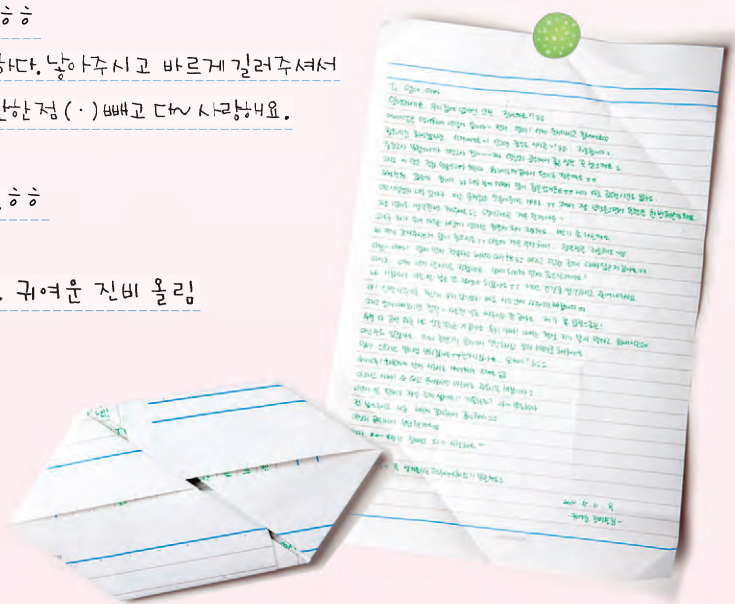
이번 편지가 가장 긴 것 같아요. 기특하죠? 아~ 뽀뽀한다. 낯아주시고 바르게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열심히 공부해서 보답할게요. 진짜 요만한 점(·)빼고 다~ 사랑해요.

P.S. 여름에 꼭 생각할 수들 해주셔야 해요!! 믿을게요. ㅎㅎ

From. 귀여운 진비 올림

공무팀 설비보전파트  
강성남 직장 자녀의 편지





# 초록빛 꿈을 키우는 슈퍼맨

● 타이어애플리트 울산 북구점

울산에는 슈퍼맨이 살고 있다. 비록 하늘로 솟아 오를 수도 없고 고향도 경상도 어데지만 그는 슈퍼맨임에 틀림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부터 수업을 마치면 학원으로 달려가 자동차 정비를 배웠다. 그리고 군대에서 정비병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10년, 모범 사원의 자격으로 다시 공부할 기회를 얻고 기능장이 되었으며, 다시 회사로 돌아와 배운 것을 나누길 8년, 그리고 자신의 매장을 꾸려온 8년. 도합 31년간 그는 자동차에 관한 꿈을 무럭무럭 키워왔다. 경력 30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슈퍼맨 면허증을 살며시 공개하는 문경상 대표. 굵은 손가락 마디마디, 어떤 비누로도 지워지지 않는 손톱의 기름때가 바로 슈퍼맨 면허증이다.

시간만으로 슈퍼맨이란 타이틀을 획득한 것은 아니다. 타이어는 물론 자동차 정비, 세차, 보험, 중고차 매매까지 모두 그 거친 손안에서 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 능력은 이미 소문이 퍼져 근처에 자리한 중산일반산업단지와 매곡일반산업단지의 수많은 회사들이 북구점과 전속 계약을 맺고 자동차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일을 직원 1명과 제책 해내는 것이 신동하다. 그 궁금증은 마침 마실 온 강 대표의 친구가 풀어주었다.

“체력이 좋고,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말도 마세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녀도 지치지도 않고 땀땀해요. 잡초처럼 강인한 사람입니다.” 자동차 관련 책으로 가득 찬 그의 책장 한편에 수북하게 쌓인 등산 전문지에 눈이 갔다. 아니나 다를까 나이에 비해 다부진 체구와 탄력 있는 피부는 15년 산행대장을 하며 다진 것이라다. 아직도 이렇듯 활력 넘치는 30년 노장에게 내일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손에 기름때 묻히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떡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요즘도 수업을 들어요. 워낙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도 아직 하고 싶은 게 많거든.”

이야기 내내 검게 물든 두 손을 꼭 잡고 있는 문경상 대표. 하긴 그가 슈퍼맨이란 걸 다들 알아버리면 산에 갈 시간도 없어질지 모르니 부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마시길. ㉞

타이어애플리트 울산 북구점 | 울산시 북구 매곡동 795-207 Tel 052-295-4890





알면 알수록 놀라운 세상 속으로

# Jumping

##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행 가방이 좋아졌습니다.

눈빛만 스쳐도 지난 여행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앨범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맘에 드는 부분은 그 목직함.

방 한구석에 오래 세워놔도 칭얼대지 않고

감쪽같은 안색으로 얼마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게 고마워 이쯤이면 다시 들고 떠날 수밖에요.





# 나무젓가락, 안 쓰는 게 사는 길이다

## 고농도 화학약품 맛

### 중국산 나무젓가락

미국의 프리랜서 여기자 사라 본지오르니는 1년 동안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험을 <A Year Without Made In China>라는 책으로 펴낸 적이 있다. 그런 그조차 지금은 중국산 없이 살 수 있으나 10년 뒤에는 '중국산 안 쓰고 살기'에 도전할 만큼 용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도 중국산 없는 삶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오늘은 중국산 나무젓가락 이야기만 집중해보자.

문제는 이 젓가락이 매우 위험하다는 데에 있다. 우리가 쓰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전량이 중국산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기존에 있던 국내업체는 젓가락 생산을 대부분 중단했고, 남아 있는 업체도 조만간 가격경쟁으로 생산을 접을 것이다.

중국이 한 해에 생산하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대략 450억 개가량(2005년). 이를 위해 벌목하는 나무는 대략 2,500만 그루로 대부분 20년 이상 자란 나무들이다. 한 그루에서 대략 3~4,000개의 나무젓가락이 나온다. 박스로는 1,000만 박스이고, 생산업체는 대략 1,000여 개. 이들은 매년 4~500만㎡의 삼림을 훼손하고 있으며, 나무젓가락 제작용으로 총 목재 소비량의 10.5%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한 해에 버려지는 나무젓가락 450억 쌍을 쌓으면 무려 170~200m³에 해당한다.

중국은 빠른 산업화로 나날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바람이 바로 황사다. 황사가 땅에 도움이 된다는 해괴한 이론도 있으나, 황사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실어 나른다. 한번 확대되기 시작한 사막화는 나무 몇 그루를 심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있는 나무'를 베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한번 쓰고 버릴, 재사용, 재활용도 안 되는 나무젓가락으로 중국인뿐 아니라 세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온난화를 막을 자원으로 온난화를 확대하는 꼴이다. 이에 중국 정부도 나무젓가락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돈이 되는 수출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만드는 과정도 문제다. 나무젓가락 자체에 OPP라는 곰팡이 방지제가 들어 있어 컵라면같이 뜨거운 물에 넣어 휘저으면 고농



황우석이라는 학자가 인기 절정이었을 때, 한 원로작가는 “황박사의 섬세한 손가락 기술은 그가 젓가락을 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무 흥분한 나머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도 오랜 시간 젓가락을 써왔다는 건 떠올릴 여력이 없었던가 보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굳이 생명공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더라도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젓가락을 쓴다. 하기가 요즘 아이들은 젓가락보다 포크를 더 쓴다는 망측한 소리도 들리긴 한다만 그 별난 아이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무리 미국화가 속도를 낸다고 해도 젓가락은 이 한반도에 밥 먹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세세토록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도 OPP가 녹아 흐르는데다 표백 등을 이유로 파라핀, 과산화수소 등 공업용 화학약품을 과다 사용하고 있다. 모두 먹으면 큰 일 나는 것들이다. 어른들보다 나무젓가락을 가장 많이 쓰는 이들은 ‘자라는 세대’이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 한 개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중국산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쪼개 뜨거운 컵라면을 맛있게 먹는다. 어른들은 입으로만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면서 이미 세상에 태어난 청소년들의 건강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 쇠젓가락 한 쌍 품은

#### 녹색 가슴

이를 어떡하면 좋을까? 무대책의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나무젓가락을 안 쓰면 그만이다. 안 쓰면 안 만들 것이 아닌가. 돈을 못 벌 중국에는 안된 일이지만, 그게 중국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이 현명한 선택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자기 젓가락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 마치 CIA요원들이 권총을 휴대하듯이 숙주머니 깊숙한 곳에 쇠젓가락 한 쌍을 지니고 다니면 좋겠다.

동시에 그게 좀팽이가 아니라 ‘용기 있고 멋진 사람’으로 통하는 쿨한 세대들이 출현해야 한다. 학생, 직장인들이 점심 때 주머니에서 쇠젓가락 한 쌍을 꺼내 들면서 허공에서 한번 딱 소리 나게 부딪치며 환호를 하는 것이다. 업소는 나무젓가락 마련에 돈이 안 들어 좋겠고, 설거지하는 데 쓰일 물이 줄어드니 결국 나라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러면 ‘무슨 강 개발’ 같은 것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라면생산업체들도 라면 봉지에 “이 라면은 일회용 나무젓가락으로 드시면 맛이 하나도 없게시리 특수한 기술로 생산했으니만치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다. 정치가들, 연예인들처럼 영향력 센 친구들도 모두 쇠젓가락 한 쌍씩 들고 다니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다.

일본이 대안으로 채택한 플라스틱 젓가락은 비싸기도 하지만, 130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쇠젓가락 각자 휴대’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를 실천하면 살 값이고, 여러 핑계로 이 간단한 실천을 우습게 여기면 먹는 도구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쇠약해지다가 끝내는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는 먼 예측이 아니라 닥친 현실이다. ㉞



### 결제계좌는 하나로, 마이너스 통장은 분리

결제계좌는 소득이 들어오고 지출이 발생하는 생활비 통장을 말한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대표적인데 금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CMA 등 날마다 이자가 발생하면서 수시 입출이 가능한 유동성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결제계좌를 바꾸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소득계좌와 지출계좌를 분리하여, 급여 등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이체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지출계좌로 옮겨서 사용하면 된다.

결제계좌는 가급적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과 지출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짜임새 있는 가계운영이 가능하고, 계좌가 많아서 연체가 발생한다거나, 자투리 돈들이 이자도 없는데 남아 있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줄이고, 부가서비스를 꼼꼼하게 체크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한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과는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이너스 통장은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하여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여 유사시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통장 경영,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 서점에서는 '네 개의 통장', '통장의 고백', '내 통장 사용설명서' 등 통장관리에 관한 재테크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돈 관리에 있어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이 틀림없다.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친숙한 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자.





통장관리는 앞서 설명한  
원칙들을 인식하고,  
다소 무계획적이고 산만한 소득 및  
지출관리, 투자 등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 비상금은 고금리 예·적금 통장에

아무리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질병이나 사고 등 갑자기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출에 대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시를 위한 비상금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흔히 비상금 통장은 3~6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CMA 등의 유동성 상품으로 준비하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의 3~6개월 치 급여는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수익률이 낮은 유동성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운용이라 할 수 없다. 또 많은 가정에서 금융상품을 해지할 만큼의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예·적금 통장으로 비상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 일도 없을 경우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해지하여 비상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중도해지비용이 유동성 상품의 수익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 기간과 목적을 고려한 투자 통장

투자 통장은 결제 통장과 별개로 투자와 관련한 지출이 발생하는 통장을 말한다. CMA 통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이체를 걸어 두어 모든 투자활동이 투자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투자 통장 안에 일정 부분은 일상적인 지출이 아닌 자동차보험, 분기 또는 연 단위 세금, 경조사, 명절, 휴가비 등과 같이 변동성 지출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용도로 배분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기간과 목표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구입, 여행, 가전제품구매 등 안정적인 중장기 재무목표 준비를 위한 적금과 주택구매, 자녀교육자금 등의 중장기 목표를 위한 펀드나 청약상품 등을 가입한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노후준비 등 장기 목표를 위한 연금보험이나 장기투자저좌 등에 가입한다. 이처럼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할 때 투자 통장을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무조건 통장을 쪼개는 것만으로 재테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불편하고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통장관리는 앞서 설명한 원칙들을 인식하고, 다소 무계획적이고 산만한 소득 및 지출관리, 투자 등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대부분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㉞



# 여름 보약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온몸의 기력을 갇아갈 무더위도 걱정이지만 여름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대장균, 장염 등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때는 입으로 들어가는 주변의 사소한 식재료가 귀한 약이 되기도 한다. 여름철 보약만큼이나 요긴한 식재료들을 알아보자.



## 잘 씻고, 잘 자고, 잘 먹어야 건강해요

여름철 무더위에 기승을 부리는 질병은 대부분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이 많다. 꼭 여름철이 아니래도 인간의 삶과 바이러스는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균 중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여름철은 더욱 위생과 영양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여름철 질환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자면 잘 씻고, 잘 자고, 잘 먹는 거라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손 씻기이다. 손은 수많은 물건을 만지기 때문에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데 그 손으로 입이나 눈, 코, 음식 등을 만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된다. 다음으로는 잘 자는 것이다. 잘 잔다는 의미는 밤 11시에 잠들어서 하루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걸 의미한다. 면역세포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그 수가 다시 늘어나고 그 기능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이다. 잘 먹는다는 것은 하루 두 끼 이상의 정상적인 한식 위주의 식사를 뜻한다. 특히 계절별 식재료는 보약만큼이나 건강에 이로운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 보약만큼 귀한

#### 여름 식재료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지금보다 체질은 더 건강했는데 지금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데도 갈수록 호흡기 질환, 위장 질환, 암, 탈모, 면역계 질환 등이 생기는 걸 보면 분명 우리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음주가 잦아지고 육류 섭취가 늘어나며 채소류의 섭취량은 반대로 줄어든다. 빠르고 건강한 제철 음식이 아닌 편리와 자극 위주의 식생활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여름이라고 차가운 것만 찾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 차가운 음식은 위장의 온도를 낮추고, 체내 온도가 낮아지면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런 때일수록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음식으



로는 현미밥, 생선류, 발효식품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생강, 양파, 깨, 마늘, 매실 등의 식재료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재료에는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발효식품은 많이 먹을수록 위장이 건강해지고 장내 유익균 수를 늘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 김치, 요구르트 등이 있다. 치열하게 살면서 원가를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과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전통 음식을 즐기며 몸을 꾸준히 움직인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여름 건강 달래는


##### 여름 과채

**수박**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자연산 전해질 음료'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고 효과적인 수분 공급원이다. 수박에 들어 있는 과당과 포도당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어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더불어 수박 속에는 강한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리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참외**는 예로부터 성질이 차고 달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갈증과 열을 없애 더위를 먹어 가슴이 답답한 것을 없애고 알칼리성 식품으로 여름철 땀의 배출로 산성화되기 쉬운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호박**은 각종 영양분은 물론 특히 이노 작용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많아 예부터 산후 부기 제거에 애용되어 왔다. 호박에는 비타민 A인 카로틴이 풍부해 위점막을 보호하므로 속이 아플 때도 효과가 좋다. 그 외 이소변, 신경통, 화상, 당뇨병, 야맹증 등을 다스리는 식품이기도 하다.

**오이**는 칼로리가 100g당 11kcal 정도로 낮고 수분이 많아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꼽힌다.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해 다이어트로 몸이 지치는 것을 막고 피로감을 덜어준다. 다만 오이의 성질이 차가운 만큼 위장이 약하고 체질이 차가운 사람은 오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날 수 있다.

**마늘**의 큰 효능은 항암과 저항력 강화다. 마늘에 들어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페니실린보다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 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감기,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의 힘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마늘은 미국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48가지 항암식품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 성교육, 미루지도 감추지도 마세요

십여 년 전 큰아이 학교에서 학부모를 위한 성교육 강좌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나는 기절할 만큼 놀라고 말았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말씀이 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부관계 하는 것도 아이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행스러웠으나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몰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게다. 여전히 성교육은 어렵고 불편한 숙제이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성장기와 사춘기 시절의 선배이며, 아이가 가장 믿고 따르는 대상이다. 밝고 건강한 성원칙만 잊지 않는다면 성교육도 그리 어려울 것 없다.





## 무조건 밝아야 할 유아들의 성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성친구의 성기나 가슴을 만졌다는 연락을 받거나, 친구와 놀다 서로 옷을 벗고 성기를 보거나 만지는 행동에 놀라 상담실을 찾는 학부모가 상당히 많다.

4~5세경은 남근기로 성기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시기이다. 이때 아이들은 유아자위를 하기도 하고 친

구들의 성기도 궁금해서 호기심을 직접 해결하고자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시기에 부모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이중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유아자위를 아단치고 무조건 못

하게 하거나, 성적놀이를 성추행으로 여

겨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오류를 범하

기도 한다. 유아들은 우연한 기회에 성기 감

각을 알게 되었을 수 있으며 기분 좋은 느낌에

끌려 반복하기도 한다. 8세 이전의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호기심을 풀어가므로 그

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성은 무조건 밝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내용보다 느낌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당황하거나 민망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과학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잘 모르

거나 즉각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땐 솔직하게 얘기하

고 성교제나 상담의 도움을 받아보자. 아이들은 부

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가 성을 밝게

대해야 아이도 밝은 에너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선택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성에 대한

접촉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 2~3학년이

되면 사춘기 변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야 한다. 사춘기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

지식이다. 사춘기 변화에 대한 성교재를 부

모님이 먼저 읽은 뒤 아이가 읽게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대화

해보자. 아이들은 관심 있는 부분만 읽거나 성교재의

특성상 그림이 많아 글은 읽지 않고 자기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유아 성교육, 이렇게 해보세요

유아들은 맘껏 뛰놀고, 보고 듣고 만지는 오감을 최대한 자극해주어야 한다. 오감발달은 신체발달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뇌자극을 통해 학습 능력도 키워준다. 시간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하루 20~30분 정도 신체놀이로 스트레스 발산과 정서적 안정을, 마사지로 성기에 집중된 감각을 분산시키도록 하자. 부모라 해도 아이가 싫다고 할 땐 억지로 하지 말고,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건 예쁘다는 표현이 아님을 알려주어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해주어야 한다.



## 성교육 추천도서

**어린이** 구성애의 '초딩아우성, '니 잘못이 아니야'

**부모님** '부모와 아이사이', '부모와 십대사이', '아이는 사춘기 부모는 성장기'

## 성교육 캠프

푸른 아우성에서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성교육 '잼잼 성교육체험관'과 초등학교 2~6학년대상 '아우성 성교육 캠프'를 운영합니다. 궁금하고 걱정되는 것은 푸른아우성 사이버 상담실(www.aosung.com)을 찾아주세요.

올바른 성지식과 부모 자신의 경험, 시대적 문화 흐름을 종합하면 요즘 아이들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는 관리자나 보호자가 아닌 상담

자, 조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이는 자아가 성장하며

부모를 밀어내고 독립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부모의 격려와 지지를 원한다. 부모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로 같은 상처라도 부모에게

받을 때가 더 크고 깊으며, 그 결과도 부모

와 가족이 가장 크게 치르게 된다. 그 때문

에 아이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자율

과 책임을 키워주면서, 바람직한 부모역

할과 대화법을 배우고 사춘기 특성을 이

해한다면 자녀들과 원만한 교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춘기

사춘기 초반의 감정이나 도덕성은 공격적이며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의 덩어리인 편도체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이 시기에 음란물이나 공격적인 게임을 접하는 건 불예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음란물을 성교재로 삼기도 해서

'자위중독'이나 '성=성관계'라는 잘못된 인식과 정

보로 심신의 건강을 해치고 이성 교제 시에도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음란물이나

공격적인 게임, 술, 담배는 기억력 저하와 도파민

생성 증가, 학습능력 손상 등 청소년의 뇌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치므로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주

어야 한다.

'성'은 매우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기 때

문에 아이의 학습수준이나 성향과 상관

없이 모든 상황에 열려 있다. 하지만 '성

에너지'란 자연스럽게 정상적이므로 아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이의 존

재를 비난하거나 부정, 무시하지 말고 잘못

된 행동을 짚어주고 수정해가며 이전과 다른

이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사춘기는 '완성'이 아

닌 '과정'이며 자존감 높고 바람직한 성인으로 완성되기

위해 부모의 태도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sup>1)</sup>



가족과 함께 떠나는 변산반도

# 바다를 품고 산을 거니는 1박2일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 다치바나 타카시가 그의 저서 '사색기행'에서 말하길 '여행의 가장 좋은 점은 일상사의 속박에서 풀려난 정신의 자유로움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막상 떠났을 때의 일. 미리 체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라 준비부터 힘에 부친다. 그러나 안심하 시라. 그것 모두 대신해주겠다. 완벽한 여행디자인. 말하자면 당신은 그저 잘 차려놓은 밥 상에 숟가락 하나만 없으면 될 뿐이다.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전북 부안 변산반도다. 자, 그럼 1박2일 동안 그곳으로 떠나볼까.











1st day

## 내변산

### 12:00 곰소 젓갈 맛 좀 보더라도

‘금강산도 식후경’.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도 없다. 곰소의 젓갈은 유명하다. 그리 짜지 않고, 풍미가 있다. 소금 때문이다. 곰소는 천일염 생산지로도 널리 알려졌다. 곰소포구에서 줄포 방면으로 가다보면 넓은 소금밭이 왼쪽으로 보인다. 곰소 젓갈은 무조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으로만 담는다. 소금밭은 일제 때 곰소포구와 함께 조성됐다. 곰소포구는 당시 일대의 농수산물을 밀반출하던 통로로 사용됐다. 수산물의 경우 썩지 않게 운반하려면 소금이 필요했기에 염전을 일구도록 한 것이다. 수십 채의 소금창고와 끝이 보이지 않는 소금밭 풍경이 아름답지만 아픈 이유가 여기 있다. 어쨌든 곰소는 그 천일염의 작품인 젓갈이 으뜸. 포구 앞에 젓갈정식을 잘하는 ‘남도횡집(063-583-2895)’이 있다. 갈치숙젓, 꼴뚜기젓, 토하젓, 개불젓, 청어알젓 등 10가지 젓갈이 한 상에 나온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하얀 쌀밥에 젓갈을 올리고 한 입, 그리고 다른 젓갈 올리고 또 한 입... 추가되느니 공깃밥이고, 불려오느니 주체 못하게 부풀어 오르는 배다.

### 13:00 내소사 성찰의 전나무숲

곰소항을 나선 후 내소사로 향한다.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내소사는 가선봉 기슭에 자리한 백제 무왕(633년) 시절 지어진 유서 깊은 절. 고려시대 동종부터 3층석탑 등의 보물이 있다. 꽃살창도 빼놓을 수 없다. 사철 지지 않는 국화와 연꽃이 대웅전 창에 걸려 있다. 단청을 하지 않았지만 그 창꽃들은 누구보다 고고하고 기품이 있다.

내소사는 절 자체도 좋지만, 가는 길 또한 명품이다.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못잖은 전나무 숲길이 일주문까지 약 600m가 이어진다. 타박타박 던지는 걸음마다 전나무가 내려놓은 피톤치드가 사방으로 퍼지며 정신을 맑게 한다. 절까지 빨리 가면 무엇 할 것인가. 길을 벗어나 숲으로 해탈하며 느릿느릿, 제대로 게으름을 피운다.

### 16:00 직소폭포 산 넘어 흘린 땀 식히는 폭포줄기

변산의 능선을 다 타고 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맛만은 보고 가야 한다. 그래서 내소사에서 관음봉을 넘어 직소폭포로 코스를 잡는다. 쉬엄쉬엄 걸어 2시간쯤 걸린다. 내변산의 최고봉은 508m의 의상봉이다. 관음봉은 424m로 그보다 낮다. 약 20분쯤 올라가면 능선에 닿고, 그 후로는 곰소와 내소사 등이 내려다보인다. 그렇게 주변을 조망하며 걷다 보면 재백이 고개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직소폭포 방향으로 오른쪽 길을 택해 내려간다. 변산의 명물인 직소폭포는 20여m의 높이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길은 산상호수인 분옥담을 지나 내변산분소 방면으로 뻗지만, 우리의 행로는 다르다. 분옥담과 선녀탕을 지나면 자연보호현장탐을 만나는데, 여기서 왼쪽 산길로 든다. 월명암 가는 길이다.







적소폭포

월명암



줄포자연생태공원

2nd day

외변산

#### 18:00 월명암 낙조에 시간을 잊고 밤을 맞다

자연보호헌장탑에서 월명암까지는 약 1시간 거리다. 제법 가파른 길이다. 월명암으로 향하는 이유는 낙조 때문이다. 월명암은 통일신라 시절인 692년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온거사와 더불어 세계 3대 거사로 꼽히는 부설거사에 의해 창건됐다. 대웅전과 관음전 등 7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월명암 뒤편 약 10분 거리에 낙조대가 있다. 외변산의 바다를 온통 핏빛으로 물들이는 해거름이 인상적이다. 낙조를 감상할 뚜렷한 의지가 있다면 월명암 도착 즉시 그곳에 거하는 보살에게 하룻밤 묵어 갈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손님들을 위한 방이 마련돼 있다. 낯선 나그네에게 선뜻 방을 내주고 저녁과 아침밥 공양까지 한다. 운이 좋다면 월명암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구름을 발아래 두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변산8경 중 제4경인 월명무애가 그것인데, 주변을 모두 지워버리는 운해가 장관이다.



#### 10:00 줄포자연생태공원 프라하의 연인이 되어

월명암에서 남여치분소로 약 1시간쯤 걸어 내려온 후, 택시를 불러 자동차가 있는 내소사로 되돌아간다. 이제 비로소 둘째 날의 여정이 시작된다. 산을 넘었으니 이제 바다를 볼 차례. 우선 줄포자연생태공원으로 향한다. 갯벌습지보호구역으로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을 찍었던 장소다. 세트장이 푸른 잔디 언덕에 설치돼 있다. 줄포자연생태공원은 약 66만㎡의 갯벌 저류지에 갈대숲과 야생화단지, 잔디광장, 은행나무 숲길 등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되어 있다.

#### 12:00 휘목미술관 작품도 보고 파스타로 요기도 하고

줄포자연생태공원에서 30번국도를 타고 격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석포삼거리 지나 오른쪽으로 휘목미술관이 보인다. 미술관과 조각공원, 카페, 레스토랑, 펜션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미술관에서는 대한민국 원로작가초대전을 비롯해 각종 전시회가 열린다. 한편에는 누드화갤러리도 마련돼 있다. 조각공원에는 약 6,600㎡의 잔디밭에 국내 유명 현대조각가들의 작품이 배치돼 있다. 작품을 둘러본 후에는 레스토랑에서 요기를 하도록 하자. 부안의 해산물과 육류를 이용한 양식 코스요리에서부터 간단한 피자과 파스타도 메뉴에 있다.



휘목미술관





채석강

### 여행 길라잡이

- 가는길 서해안고속도로-줄포IC  
→ 부안 방면 23번국도 → 영전리  
→ 30번국도 → 곰소항 → 내소사(내변산) → 모항 → 궁항 → 채석강.
- 문의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191,  
www.bu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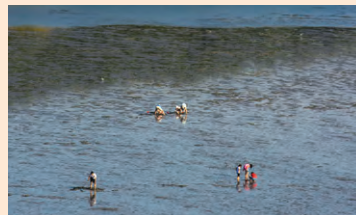
채석강 일몰

### Tip 변산반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체험 여행

보고 들었던 것보다 몸으로 부대끼며 느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남는 법이다. 변산반도의 추억을 모 건전지 광고처럼 '힘세고 오래가게' 해 줄 체험거리를 소개한다.

#### 갯벌에서 텅굴며 조개잡기

변산반도는 두포, 모항, 개화, 하섬 등 곳곳에 갯벌체험장이 있다. 따로 연락을 할 필요 없이 그곳으로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바지락, 낙지 등이 차고 넘치는 곳이 변산반도의 바다다. 특히 하섬은 하루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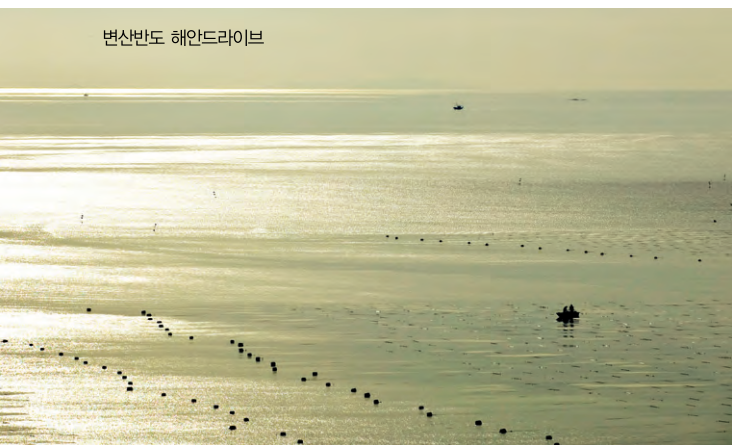
번 썰물 때면 바닷길이 열리는 곳으로 무료체험이 가능하다. 다만, 호미와 바구니 등 갯벌체험용품은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다면 여벌의 옷. 설마 갯벌에 들어가면서 급게 나올 생각은 아닐 터. 체면을 벗어던지고 텅굴며 노는 것이 갯벌체험의 최고 미덕이다.

**내소사 템플스테이** 월명암에서 묵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템플스테이와는 다르다. 월명암에서야 반드시 사찰의 법도를 따를 필요가 없는 하룻밤 묵어가는 관광객일 뿐이니까. 그러나 내소사 템플스테이(063-583-3035)는 제대로 사찰의 하루를 사는 것이다. 숙제에서는 초저녁이나 다름없는 저녁 9시에 잠들고, 새벽 4시부터 좌선을 한다. 아침에는 스님들이 드시는 그대로 발우공양한 후, 빗질, 울려에 동참한다. 술, 담배, 육식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단 하루의 금욕생활, 욕망의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몸소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다.

### 14:00 모항·궁항 가슴 트이는 해안드라이브

왕포, 작당, 모항을 거쳐 궁항으로 이어진 길은 구불구불 해안선을 따라 가는 게 매력만점. 소박하지만 당당히 바다와 맞서는 포구들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길을 저어간다. 그렇다. 이 길은 '달린다' 기보다 마치 배처럼 '젓는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이 길에서 자동차는 속도를 잃는다. 조금 가다 보면 오후 햇살에 거울처럼 빛나는 바다가 바퀴를 붙들고, 다시 조금 가다 보면 그악하게 갯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달픈 풍경이 또한 멈추라 한다. 한편, 모항과 궁항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 모항에는 촬영 시 썼던 판옥선 세 척이 정박돼 있고, 궁항에는 한옥건물 세트장이 있다.

변산반도 해안드라이브



### 17:00 채석강 책 읽는 소리 들리는 바다

궁항을 지나면 곧 격포다. 채석강은 격포항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나온다. 채석강은 당나라의 이태백이 놀았다는 장소와 꼭 닮아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 절벽이 높아 솟아 있다. 두껍게 한 겹 한 겹 쌓여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위는 사실 종잇장처럼 얇은 판이 켜켜이 겹쳐진 것. 채석강에는 파도가 깎아 만든 해식동굴들이 여럿 있다. 수만 년 세월에 걸쳐 파도가 절벽의 약한 부분을 파헤쳐 만든 동굴이다. 채석강에서 해거름까지 감상하고 부안을 떠나는 길, 출출한 배나 채우고 가자. 부안을 대표하는 음식인 바지락죽을 잘하는 집이 있다. 부안읍에서 새만금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새만금방조제 500여m 전방에 해창교라는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좌회전한 후 이정표를 따라 약 2~3분쯤 가다보면 '변산 명인 바지락죽(063-584-7171)' 이 나온다. 바지락 회무침, 바지락보쌈, 바지락전 등 그 메뉴가 다양하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바지락보쌈. 데친 후 표고버섯과 함께 조물조물 양념을 한 바지락과 파프리카, 무순, 새싹채소, 6년근 수삼 등을 상추나 깻잎에 싸서 먹는다. ㉞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건물을 높이 지어야만 사람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로데오 거리에 자리한 타이어뱅크 서일산점은 뱃심 하나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는 물론이고, 매장 앞 교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에도 차창을 뚫고 전해질 정도로 우렁차게 “안녕하십니까!” 하며 존재감을 표현한다. 그것도 홍현수 점장까지 모두 4~5명이 나란히 서서 말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을 뛰어넘을 방법을 궁리하고 각오대로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죠. 타이어뱅크의 사훈 중에 ‘땀 흘려 가난극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공감하고 있죠. 또 이뤄나가는 중이고요.”

말하는 입매며 생김도 차돌처럼 아무저 봐는 홍현수 점장은 경기지역 3~4위를 다투는 매출 상위 매장임에도 아직 허기진 듯 각오가 대단해 보였다. 사무실 벽면에 반듯하게 붙여놓은 표어도 서일산점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짐작하

게 했다.

“하나, 손님보다 목소리가 크면 떠나라(친절). 둘, 느린 자는 빠른 자에게 잡아 먹힌다(신속). 셋, 상하 불복종은 배신이다(상명하복)” 등이다. 글자 하나하나에 굳은 결기가 맺힌 듯 단단하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가장 독특해 그 뜻을 물었다.

“설사 손님이 잘못된 요구를 해도 그것을 이기려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득해 이긴다고해도 손님의 마음이 상하면 이미 이기는 게 아닌거죠.”

그래서 홍 점장은 직원들의 응대법에 관한 교육이 철저하다. 인사는 물론 말투나 단어, 악센트까지 고객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철저히 배려한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 저와 꿈이 같습니다. 땀 흘린 만큼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뜨겁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④

타이어뱅크 서일산점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425-6 Tel 031-919-2002

타이어뱅크 서일산점 ●

## 새빨간 열정을 품은 남자들





## 신뢰 통한 상생을 도모하다 2010 임금협상 타결



2010년 임금협상이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7일 본사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이현봉 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성경 노조위원장과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임금협상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한바,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하여 회사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춘 최첨단 친환경 공장 창녕공장 기공식



지난 6월 24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일원 증설예정지에서 넥센타이어 임직원 및 일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녕공장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창녕공장은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최첨단 친환경 자동화 공정으로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강병중 회장은 “청정이미지의 창녕공장은 세계 10위권 글로벌 기업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조기 완공을 통해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2,00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창단 15년 만에 전국결선 쾌거 임페리얼컵 FC 챔피언십 우승



넥센타이어는 지난 6월 27일 울산시 스포츠파크에서 벌어진 임페리얼컵 FC 챔피언십 2010 부산-울산-경남권역대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부산체신청을 2대0으로 누르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넥센타이어는 그간 '2약'으로 불린 설움을 딛고 대회 3연패에 빛나는 세종공업마저 완파하고 연전연승을 거듭했다. 부산체신청과의 결선경기에서는 전반 26분 김대건의 선취골로 기선을 제압하고, 후반 11분 김성규의 터닝슛으로 쐐기를 박으며 도전 3년, 창단 15년 만에 전국결선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이날 박영국 직장은 팀 내 최고령임에도 멋진 활약을 보여 MVP에 선정됐으며 “전국 결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일본능률협회, 상품과 서비스 대상 조사 글로벌고객만족도 1위 인증



넥센타이어가 지난 6월 11일 일본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글로벌고객만족도 타이어부문 1위 인증을 받았다.



글로벌경영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4주간 주요 소비자 1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능률협회 컨설팅의 평가모델에 따라 총 10개 산업군, 165개 부문, 697개의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조사를 시행했다. 넥센타이어는 국내 및 수입 타이어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타이어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넥센타이어는 “2008년부터 업계 최초로 명품보증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인 고객만족 캠페인을 펼치고, 모바일 서비스카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고 밝혔다.

#### CJ 헬로넷 슈퍼레이스 공식후원 넥센N9000클래스 신설



넥센타이어가 모터스포츠 대회인 2010 CJ 헬로넷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공식 타이어 후원사로 나섰다. 지난 6월 9일 넥센타이어와 KGTCR은 함께 조인식을 하고 기존 슈퍼1600클래스를 ‘넥센 N9000클래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 타이어 후원은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CJ 헬로넷 슈퍼레이스의 ‘넥센N9000클래스’는 지난 7월 3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이타현에 위치한 오토폴리스에서 첫선을 보였다.

#### 2002년 이후 최대 실적 5월 우수제안 현장발표회

2010년 5월 우수제안 현장발표회가 양창수 생산본부장과 관련 팀, 파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우수 제안자들이 자신의



제안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개선 사항을 보여주는 등 전사적으로 활성화된 제안제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2010년 5월의 유형 제안 건수는 총 101건으로 2002년 이후 제안 건수 및 경제효과 등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우수 제안자: 품질검사팀 박창현 사우, 가류파트 김형진 사우, 설비보전2파트 황동울 사우, PCR 파트 양규상 사우, 설비보전1파트 방기춘 사우

#### 애사심, 협동심, 단합심을 기르는 시간 상반기 노동조합 워크숍



지난 6월 29일 2010 상반기 노동조합 워크숍이 열렸다. 양산 본사에서 제32년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이어진 이번 워크숍은 해운대 한화 콘도에서 진행되었다. 1박2일의 워크숍 동안 조합원들은 더욱 깊은 애사심과 협동심, 단합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경 노조위원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전망이지만, 우리가 모두 신뢰와 믿음으로 서로 돕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 넥센 히어로즈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가 실릴 넥센 히어로즈 이벤트 사이트 OPEN



제품 구매고객과 프로야구팬을 위한 넥센 히어로즈 이벤트 사이트(heroes.nexentire.com)가 정식 오픈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증서 등록 이벤트' '신제품 퀴즈'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흥미를 끄는 다양한 이벤트와 타이어상품권, 키자니아 관람권, 넥센 히어로즈 야구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벤트 사이트 오픈이 타이어 구매고객 및 프로야구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고마운 사람들 상반기 정년퇴임식



넥센타이어 상반기 정년퇴임식이 지난 6월 28일 홍보관 옆 교육실에서 동료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되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감사패와 순금 행운의 열쇠가 기념으로 증정되었다. 생산본부 장인 양창수 상무와 이성경 노조위원장장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동료이니만큼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며, 퇴임식 이후에도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퇴임자들은 넥센타이어에서 지내온 시간을 되새기며 함께 근로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 상반기 정년퇴임자 : 생산팀 UHP파트 진형기 사우, 품질경영팀 김호학 사우, 물류관리팀 제품관리파트 박재갑 사우

## 클린팩토리 둘러보며 신뢰를 쌓다 북미 거래선 4곳 본사 방문



지난 6월 9일, 북미 거래선 4곳이 양산 본사를 방문했다. 방문 회사는 K&W Tire, Dealer Tire, Tri-State Tire, Hornsby

Tire 등으로 바이어들은 넥센타이어 공장 투어 프로그램인 클린팩토리에 참여했다. 바이어들은 공장 현장 투어 및 연구소 견학 등을 하며 넥센타이어의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안고 돌아갔다.

##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넥센 2010 창립기념식



넥센타이어 창립기념식이 지난 4월 30일 양산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근상, 장기 근속상, 모범사원상 등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이현봉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는 좋은 결실을 위한 거름이라며 이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堂堂히 나설 것을 권고했다.



**근무 중인 사우를 위해 사내 응원전  
양산 본사 월드컵 응원**



월드컵 대표팀의 경기가 있었던 지난 6월 12일, 17일, 23일 3일간 양산 본사에서는 월드컵 응원전이 펼쳐졌다.

근무 중인 사우 및 회사 동료와 함께 축구를 즐기고 싶은 사우를 위해 식당과 식당 앞 광장에 120인치 LED와 빔프로젝터를 동원하여 자리를 마련했다. 각종 응원도구는 물론 뜨거운 함성으로 열띤 응원을 보여준 이번 응원전은 스포츠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글로벌 넥센을 위한 비전 공유  
경력사원 입문교육**



넥센타이어는 지난 6월 14일부터 약 2주간 세정인력연수원과 양산 본사에서 경력사원 입문교육을 시행했다.

총 11명의 경력직사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타이어 제조공정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창의적인 사고혁신, 협력적 의사소통, 도전정신 함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넥센타이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사심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

**3정5S, TPM활동상태 평가한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대회**



지난 6월 23일 넥센타이어 양산 본사에서는 전사적 TPM활동에 사우들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밝고,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자랑대회'를 개최했다. 생산본부, 연구개발본부, 물류관리팀 등 총 15개 팀이 참가해 TPM활동인 3정5S의 개선활동 상태를 평가하는 이번 대회는 품질검사팀이 금상, 정련파트가 은상, 가류파트, 재료파트, 물류관리팀이 동상을 수상하며 활동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10개 팀과 파트도 장려상을 수상, 서로의 노고를 칭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끊임없는 노력의 결정체  
넥센 다이넥스 각종 대회 준우승**



넥센타이어 야구 동호회 넥센 다이넥스가 지난 6월 13일 벌어진 제9회 양산시 생활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총 24개팀이 참가한 이번 경기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여주었다. 넥센 다이넥스팀 회장 이병근 직장은 "보다 나은 사회인 야구 활동 및 회사 홍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동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느 멋진 날

선후배, 동료, 협력사 사우 등 가족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챙기고 북돋워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독자엽서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사연을 보내주시면 <헬로우 넥센>에서 특별한 하루를 선사해드립니다.

### 패밀리가 뒀다

가족이 힘을 모아 새로운 세상에 도전해보세요. 독자엽서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매호 색다른 테마의 만들기를 가족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편지 쓰기 좋은 날

가을호에는 '편지 쓰기 좋은 날' 대신 <헬로우 넥센> 만추백일장이 진행됩니다. 시, 에세이, 편지를 직접 담당자에게 전해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글과 사진에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독자 후기

<헬로우 넥센>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넥센타이어의 사보입니다. 좋았던 기사, 아쉬웠던 기사, 바라는 점 등 독자 후기를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헬로우 넥센> 독자엽서에 수취인 후납 부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더욱 간편하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소중히 여기는 <헬로우 넥센>이 되겠습니다.

### 독자 후기

'넥센 히어로즈' 때문에 넥센타이어를 알고, <헬로우 넥센>을 접했습니다. 앞으로도 넥센 히어로즈와 관련된 기사, 야구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봄 호에서는 도시 농부에게 배우는 텃밭 농법이라는 기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평소 누구나 텃밭에 관심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들을 배우기 쉽게 해주어요. 특히 베란다 텃밭이 참 좋았습니다. | 김소연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평소 여행에 관심이 많아 여행정보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철에 여행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헬로우 넥센>에서 이런 여행정보를 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이나 맛 집, 가는 방법, 특히 관광 명소, 숙소 등 요점을 콕콕 짚은 여행 기사라면 <헬로우 넥센> 독자들도 모두 좋아하지 않을까요? | 문동현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먼 외국에서 고향 친구를 만난 기분이 이럴까요? 봄호 넥센프렌즈의 사장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전 퇴근길에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잠시 들렀던 가게의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마치 오랜 단골손님처럼 대해주시면서 어찌나 설명을 잘 해주시는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도 넥센타이어 성능을 그렇게 자랑하시기에 저도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 김동윤 화성시 봉담읍 상리

### 퀴즈 당첨자

양승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황누리 부산시 북구 덕천동  
백성현 경북 칠곡군 약목면  
박금자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김수윤 대전시 중구 태평동  
박순성 경남 양산시 물금읍  
김은주 전남 목포시 용당1동  
김남일 강원 강릉시 일암동  
김윤정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 <지난호 독자 퀴즈 정답>



7	5	4
6	3	8
1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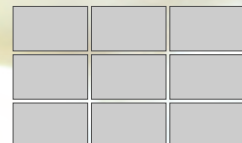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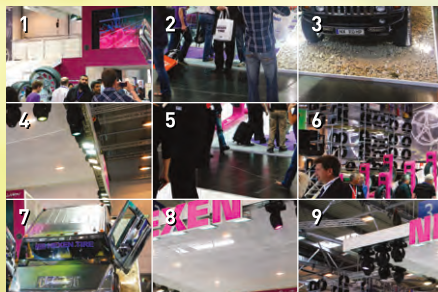
:: 담당자 - 인사노무팀 박수현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 독자후기 및 퀴즈 당첨자에게는 넥센 히어로즈 후드티와 모자, 상품권, 타이어할인권 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엽서에 받고 싶은 상품을 적어 보내주세요.

:: 엽서는 8월 3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Quiz 사진을 완성해 주세요

이번 호에 실린 사진 중 한 장입니다. 서로 뒤바뀐 조각의 위치를 바로 잡아 독자엽서에 순서대로 번호를 표시해 보내주세요. 완성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엽서에 정답을 체크하여 8월 3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폭신폭신헌 자전거 호강길

페타이어를 송송 썰어 길 위에 한 겹 이불을 깔았습니다.  
일부러 산으로 들로 달리기 좋은 길 찾아 나선다지만  
이 폭신폭신헌 쿠션감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아이쿠 허리아” 조약돌이 바위처럼 무서운 어르신도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아직은 두발자전거가 버거운 아이도  
“오늘 기록 좀 세워볼까?” 신기록을 탐내는 젊은이도  
이 폭신헌 자전거 호강길이라면 한번 용기를 내 볼만 할 겁니다.





일본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0 글로벌 고객만족도  
타이어부문 1위 넥센타이어

By Bob Ulrich

**W**hat recession? What tariff? Nothing seems to be able to stop the demand for high and ultra-high performance tires.

Replacement passenger tire shipments in the United States were down 6.6% in 2009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n contrast, high performance (H-rated,

## Performance market share by brand

( UHP = 22.6 million units )

Brand	UHP
Goodyear	15.5%
Michelin	14.0%
Bridgestone	9.5%
Yokohama	4.5%
Kumho	3.5%
BFGoodrich	5.5%
Hankook	4.0%
Toyo	4.5%
Falken	8.0%
Firestone	3.5%
Dunlop	5.0%
Continental	4.0%
Pirelli	4.0%
General	1.5%
<b>Nexen</b>	<b>5.0%</b>
Sumitomo	1.5%
Nitto	1.0%
Wanli	1.5%
Fuzion	1.0%
Others	4.0%

**Nexen 5.0%**

Because numbers are rounded to the nearest half-percent, the total may not equal 100%. Brands must have at least 1% of the total HP or UHP market in shipment numbers to be listed at 1%.

Modern Tire Dealer

# 놀라운 5%! 국내 타이어 중에선 오직 넥센타이어 뿐!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UHP타이어 점유율에서  
넥센타이어, 한국을 넘는 '글로벌 파워 브랜드' 입증

미국 최고 권위의 타이어잡지 MTD(Modern Tire Dealer) 조사결과  
넥센타이어의 UHP타이어 (초고성능 타이어) 미국내 점유율이

주요 경쟁업체를 앞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직 품질과 기술력으로 사랑 받는 넥센타이어!

한국을 넘고 세계를 향해 달립니다

70-series or lower) tire shipments were up 6.4%, from 27.8 million units in 2008 to 29.6 million.

The growth in UHP tire shipments was even more dramatic. They increased 14%, from 19.8 million units to 22.6 million.

In the last five years, domestic UHP shipments have grown 75%.

"UHP is the battlefield today," says Rick Brennan, vice president of marketing for Kumho Tire U.S.A. Inc. "It's where the profit is."

### Large rim diameters

UHP tires, loosely defined as V-rated and higher, are often associated with large rim diameters. Entering 2009, there were 324 passenger tire sizes; 55% of them were at least 17 inches in diameter, according to the Tire & Rim Association.

U.S. imports of those sizes were down significantly last year. But comparable Chinese passenger tire imports, despite the additional 35% tariff imposed on them by President Barack Obama on Sept. 26, were up close to 75%.

Not everyone was able to overcome

the tariff and take advantage of the tariff, however. After announcing its new Diamondback performance line, manufactured by Triax Ltd. in Shandong, China, last August, Zisser Tire Co. pulled the plug "due to the tariff."

High/ultra-high performance market share based on 52.2



MTD February 2010



**N9000**

스트리트레이서를 위한 타이어,  
온오프로 느끼고 퍼포먼스를 즐겨라!

**N8000**

스포츠 세단에 날개를 달다!  
품위있는 질주본능

**N6000**

유럽퍼포먼스타일의 젊은 감각,  
스포츠한 드라이빙에 빠지다!

**NEXEN**

**넥센타이어**

www.nexentire.com